

『東醫壽世保元』에서 性命的 4요소와 太少陰陽人 配屬에 대한 考察

慶熙大學校 韓醫學科大學 原典學教室¹
趙榮¹ · 丁彰炫¹ · 張祐彰¹ · 白裕相¹ *

A Study on the Four Elements of Seongmyeong(性命) and Their Attributions to the Four Constitutions Based on Dong-uisusebowon(東醫壽世保元)

Cho Young¹ · Jeong Chang-hyun¹ · Jang Wook-chang · Baik You-sang¹ *

¹Dept. of Oriental Medicine Classics,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Kyunghee University

The primary reason for the uprising interest and research concerning constitutional medicine is due to a shift in paradigm; from one that treats based on symptoms to one that emphasizes unique personal traits such as living conditions and psychological factors. Of the Cheoninseongmyeong(天人性命), the components of Seongmyeong(性命) theory on constitutinal medicine, this study discusses how the Hyegak(慧覺) of Juchaek(籌策), Gyeongryun(經綸), Haenggeom(行檢) and Doryang(度量), the 4 components of Sung(性), and the Ja-eop(資業) of Sikgyeon(識見), Wiui(威儀), Jaegan(材幹) and Bang-yak(方略), the 4 components of Myeong(命) are assigned to each of the 4 different constitutional types. Ultimate Hyegak[絕世之慧覺] and Goodman's Ja-eop[大人之資業] can change according to the individual's will to overcome one's shortcomings despite the correlations made between Hyegak(慧覺) and Ja-eop(資業) of the 4 elements of given Seongmyeong(性命) and the 4 constitutions. The focal point in the discussion of Dongmu's Jihaeng theory is that any flaws one might have ought to be overcome by following in the footsteps of others who are better and any gifts ought to be shared with those who don't have the privilege to enjoy it. Thus, from the fact that Dongmu's Jihaeng theory is not one that confines one to a certain body type but is meant to be the basis for realizing which paths, or Seongmyeong(性命), ought to be taken, we can learn how to overcome disadvantages due to body constitution. Furthermore, Dongmu's Suyang(修養) theory is significant and valuable in that it can not only be utilized to bring personal welfare and longevity but also to achieve a healthy and moral society.

Key Words : Seongmyeong(性命), Jihaeng(知行), Hyegak(慧覺), Ja-eop(資業), Ultimate Hyegak[絕世之慧覺], Goodman's Ja-eop[大人之資業]

I. 序論

東武는 『東醫壽世保元』의 「性命論」, 「四端論」, 「擴充論」, 「臟腑論」에서 四象醫學의 원리인 四象哲學을 밝히고, 「醫源論」과 「病證論」에서 既存의 醫學과 比較說明하면서 새로운 측면에서 醫學精神을 論하였다. 四象醫學의 哲學的 側面에서의 그 淵源은 儒學思想이 근간이 되어 既存醫學이 자연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大宇宙와 小宇宙라는 시각에서 출발한 自然中心의인 觀點인 陰陽五行論으로 天人關係를 설명한 것과는 다르게 사람(自己)과 사람(他人) 사이의 관계 또는 사회적 환경 속에 처한 人間을 이해하고자 하는 人間中心思想에 바탕을 둔 心身關係의 人間觀이라 할 수 있다.¹⁾ 또 東武는 人間과 宇宙, 主觀世界와 客觀世界의 대비적 觀點 속에서 다시 存在를 구성하는 事心身物의 네 가지 요소로써 對상을 분석하는 독특한 世界觀을 제시하였다.²⁾

東武의 초기 저서인 『格致彙』에서는 ‘誠’과 ‘知人’을 강조하며 ‘修己治人’의 조화를 말하였고, 『東醫壽世保元』 「四端論」에서 心因論的 病因觀을 가지고 과도한 감정의 폭발을 경계하고 있으며, 「性命論」에서는 額臆臍腹과 頭肩腰臀에 숨겨진 邪心和 怠行을 들어 실천윤리적 내용을 강조하고 있다.³⁾ 또한 「廣濟說」에서는 天下의 病이 모두 ‘妬賢嫉能’에서 비롯된다하여 四象醫學은 人心이 天命으로부터 받은 人性, 즉 性情을 바탕으로 한 醫學임을 말해주고 있다.⁴⁾

그리고 『東醫壽世保元』은 「性命論」에서 四象哲

學의 핵심인 天人性命의 四象構造를 밝히고, 「四端論」에서 哀怒喜樂 性情의 相成, 相資의 원리와 順動, 逆動의 원리를 통하여 臟腑의 大小에 의한 四象人의 성립 당위성을 밝히고, 「擴充論」에서 각 四象人이 갖는 性情의 특징 및 反省하고 경계하여야 할 조건을 제시하였으며, 「臟腑論」에서 前後四海論에 의한 水穀의 대사과정을 통하여 四象醫學의 生理觀을 구체화하였다.⁵⁾⁶⁾

『東醫壽世保元』에서 四象醫學의 原理를 밝히고 있는 「性命論」에서부터 「擴充論」까지의 내용을 연구하다보면 각 체질별로 天人性命의 배속에서 能한 분야가 순차적으로 바뀌고 있는데 天人性命의 각 분야에 따라 체질적 배속이 바뀌게 되는 원리가 무엇인지, 또 그러한 배속을 한 東武의 의도는 무엇인지를 탐구해 보고자하는 의욕에서 본 논문은 출발하게 되었다.

구체적으로 「性命論」에서 知에 해당하는 籌策, 經綸, 行檢, 度量의 慧覺이 額臆臍腹에 존재한다고 설명하였는데 「擴充論」에서는 「性命論」의 구조와는 다르게 ‘太陰之額에 驕심이 없다면 絕世의 籌策이 반드시 여기에 있게 된다.’⁷⁾라고 하였다. 「性命論」의 구조를 바탕으로 한 상식대로라면 당연히 太陽之額에 籌策이 있어 이것이 만약 驕心を 극복하게 된다면 이것이 絕世의 籌策이 되어야할 것인데 이와는 상반되게 太陰之額에 있다고 한 이유가 무엇인지 『東醫壽世保元』原文 내에서는 직접적으로 그 까닭을 밝히고 있지 않고 있다. 현재까지 四象醫學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왔고 수많은 論文들중에 四象醫學의 原理論을 연구한 論文을 찾아보면 일반적인 慧覺·資業과 絕世之慧覺·大人之資業의 차이를 구분하지 않고 太少陰陽人의 性命(知行)에 대한 배속을 絕世之慧覺과 大人之資業의 배속⁸⁾을 따라 구

* 교신저자 : 白裕相, 慶熙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學教室,
E-mail : baikys@khu.ac.kr Tel : (02) 961-0326,
접수일(2009년 7월 25일), 수정일(2009년 8월 6일),
게재확정일(2009년 8월 14일)

1) 朴性植, 宋一炳. 四象醫學의 醫學的 淵源과 李濟馬 醫學思想에 대한 研究. 대한한의학회 사상의학회. 1993. 5(1). p.1.
2) 白裕相. 東武李濟馬의 性情論에 대한 해석-四七理氣論辯을 중심으로. 한국철학논집. 2009. 26. pp.218~220.
3) 李乙浩, 洪淳用. 四象醫學原論. 서울. 행림출판사. 1973. p.27.
4) 허훈. 동무이제마의 철학사상. 서울. 심산출판사. 2008. pp.16-18.

5) 전국한의과대학 사상의학교실. 四象醫學. 서울. 集文堂. 1997. p.91.
6) 盧相容. 東武 四象醫學의 哲學的 意義와 醫學的 擴張. 世明大學校大學院. 2006. pp.3-9.
7) 李濟馬 原著. 權健赫 編輯. 李濟馬全書. 서울. 도서출판반룡. 2002. p.22. 『東醫壽世保元』 「擴充論」에서 “太陰之額, 宜戒驕心. 太陰之額, 若無驕心, 絕世之籌策, 必在此也.”라 하였다.

분 짓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고, 최근의 논문 중에서 絶世之慧覺과 大人之資業이 형성되는 부위가 각 體質의 性情이 不及한 부위인 사실을 들어 설명을 시도한 論文⁹⁾이 있으나 사상의학의 전체적인 철학적 고찰 중에 잠시 언급이 되면서 그 논리적 근거를 상세히 밝히고 있지는 않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本論文은 각 體質에서의 慧覺과 資業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리고 일반적인 慧覺, 資業과 絶世之慧覺과 大人之資業이 어떻게 틀리고 體質마다 不及한 性情의 부위에 絶世之慧覺과 大人之資業이 배속된 이유가 무엇이고 그러한 배속에는 東武의 어떤 뜻이 담겨있는지에 대해 연구해보고자 한다.

위에서 제기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東武의 著書에 해당하는 『格致藁』와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¹⁰⁾, 『東醫壽世保元』의 원문¹¹⁾을 주로 참고하여 연

구하였으며 四象醫學의 성격상 타 한의학원전과는 원리적으로 기본바탕이 판이하기 때문에 현재까지 東武의 著作으로 인정되는 著書 이외의 것들은 배제하였다.

『東醫壽世保元』은 기존의 한의학 원리와는 다르게 인체의 운행 원리를 陰陽五行의 木, 火, 土, 金, 水로 설명하지 않고 있다. 四象體質醫學에서 유일하게 운행의 매개 역할을 설명하는 용어가 哀怒喜樂之氣이며 이 哀怒喜樂之氣가 기존 한의학의 五行의 기능을 대신하고 있다. 그리고 哀怒喜樂之氣가 발동하게 되는 원인이 相欺 欺己, 相侮 侮己, 相助 助己, 相保 保己라고 원문에 명기되어 있는 바 欺侮助保의 의미가 과생되는 연속선상에서 邪心和 慧覺의 의미를 재조명하고 마찬가지로 怠行과 資業의 의미를 재해석해보고자 한다. 그리고 絶世之慧覺과 大人之資業이 되기 위해서는 왜 太少陰陽人이 본질적으로 타고난 性情과 상반된 체질에서 형성될 수 있는 것인지를 東武의 초기 저작에 해당하는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의 원문을 『東醫壽世保元』의 원문과 비교하면서 각 조문에 숨겨진 뜻을 밝혀 東武의 체질별 知行의 長短點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을 밝히고 絶世之慧覺과 大人之資業에 대해 東武가 부여하는 의미와 그것이 太少陰陽人에 어떻게 배속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찾아내고자 하였다.

II. 本論

인체의 前後 腹背에서 이루어지는 慧覺, 資業이 형성되는 기전을 이해하기 위해 선행되어야 할 것이 性과 情의 기능적 차이와 人體 腹部와 背部의 공간적

8) 太陽人은 行檢과 方略, 少陽人은 度量과 材幹, 太陰人은 籌策과 威儀, 少陰人은 經綸과 識見이 能하다는 연결 방식이다.

9) 『東武 李濟馬 四象醫學과 哲學에 대한 考察』(이병채, 원광대학교한의학전문대학원, 2006. p.38.)에서는 慧覺은 偏小之臟, 資業은 正臟이라는 근거를 들어 絶世之慧覺과 大人之資業을 설명하였고, 『동무 이제마의 수양론의 특질』(허훈, 동양철학연구, 동양철학연구회, 2007. pp.16-17.)에서는 인체 前面部는 太陽-太陰, 少陽-少陰의 대비 구조를 갖고 있고, 인체 後面部는 太陽-少陰, 少陽-太陰의 대비 구조를 갖고 있다는 전제 아래에서 설명하고자 하였으며, 『東武 四象醫學의 哲學的 意義와 醫學的 擴張』(盧相容, 세명대학교대학원, 2006. p.33.)에서는 잠시 표로 제시되는 정도로 설명을 대신하고 있다. 그러나 體質별 慧覺, 資業의 配屬에 대한 논의는 논문의 주제에서 벗어나 지엽적으로 다루어지고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본격적인 논증은 하고 있지 않다.

10) 東武의 『東醫壽世保元』에 대한 초기 저작으로 알려진 著書로 『東醫壽世保元草藁』, 『東醫壽世保元 四象草本卷』, 『四象醫學草本卷』등으로 불리워지고 있다. 本論文에서는 이후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으로 칭한다.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은 3卷 1冊으로 「卷之一 原人」, 「卷之二 病變」, 「卷之三 藥方」으로 구성되어 있다. 『朝醫學』에 실린 『四象醫學草本卷』은 각 卷과 統이 큰 글씨로 쓰여 있고 각 단락의 띄어쓰음으로써 보기 쉽게 편집되었다는 것과 각 卷의 편명을 第一卷, 第二卷, 第三卷(藥方)으로 수정한 부분만이 다르다.

11) 朴性植의 『東醫壽世保元 四象草本卷』에서 선행 연구된 내용을 참고하면 東武 李濟馬(1837 - 1900)의 저서 중 『東醫壽世保元』이 醫學書라 한다면 『格致藁』는 哲學書라 할 수 있다. 本論文에서 인용된 『格致藁』와 『東醫壽世保元草藁』, 『東醫壽世保元』의 저술 시기를 잠깐 살펴보면 『格致藁』는 李濟馬가 44세 되던 해(1880년, 庚辰)부터 57세

(1893년, 癸巳)에 『東醫壽世保元』(1893 - 1900) 집필을 시작하기 직전까지 10여년에 걸쳐 「獨行篇」, 「儒略」, 「反誠箴」의 順으로 완성해 나간 점으로 볼 때 이 3권의 내용은 『東醫壽世保元』에서 사상의학의 原理論을 형성하는 철학적 기초가 되었음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전국한의과대학 사상의학교실, 四象醫學, 서울, 集文堂, 1997. p.40.) 그리고 『東醫壽世保元草藁』는 그 저술 시기가 명확하진 않지만 내용면에서 봤을 때 1882년에 작성된 『東武遺稿』教子平生箴』 보다는 후에, 1893년에 저술된 『格致藁』 「反誠箴」 보다는 이전에 쓰여진 것으로 보여진다.

차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그래서 본격적인 이론 전개에 앞서 性情의 차이에 대해 먼저 考察하고, 이어서 前後腹背의 四焦 구분에 따른 東武의 人體에 대한 空間的인 이해를 敘述하고자 한다. 그리고 哀怒喜樂之氣를 중심으로 天機, 人事, 慧覺, 資業과 더불어 邪心, 怠行에 대한 研究를 본격적으로 진행한 다음 본 論文의 핵심인 絕世의 慧覺과 大人의 資業이 어떻게 太少陰陽의 四象體質에 配屬되는지에 대하여 論하고자 한다.

1. 性情에 대하여

1) 東武에 이르기까지 역대 理氣性情論에 대한 비교

東武는 四象醫學의 이론적 근거를 儒學의 性命에 두면서도 그 해석은 종래와 방향을 달리하고 있다. 性命은 儒學의 중심이론으로서 이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학문적 입장이 달라지게 되는데 東武 또한 性命을 핵심으로 四象醫學의 이론을 전개하면서도 종래 儒學과는 근본적으로 새로운 관점에서 이를 해석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독창적인 의학 이론을 전개하고 있다.¹²⁾

儒家의 性命觀이 어떤 변천과정을 거쳐 왔는지 살펴보면, 孔子가 性相近¹³⁾을 말한 이래 儒家에서는 人性을 다양한 시각에서 다루어 왔다. 즉 孟子의 性善說, 荀子의 性惡說, 公孫子の 性無善惡說, 揚雄의 性善惡混說, 韓愈의 性三品說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人性이 天命과 함께 유학의 주요한 문제로 다루어진 것은 『中庸』 첫장의 ‘天命之謂性’¹⁴⁾ 절의 性과 天命에 대한 송대 유학자들의 형이상학적 해석에서 비롯되었다고 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노장사상과 불교의 영향을 받은 북송 유학자들은 이 절과 『周易』 「乾卦」의 ‘乾道變化 各正性命’ 절에서 天과 乾道를 우주(天)로, 性과 性命을 인물의 性으로 이해하는 우주론적 내지는 형이상학적 해석을 시도했으며, 이후 유학자들은 이에 대한 해석에 따라 학문적 입장을 달리

했기 때문이다.¹⁵⁾

朱子는 북송 유학자들의 해석을 바탕으로 인간을 포함한 모든 존재를 理와 氣로 설명하면서 우주 만물의 생성은 氣化로 이루어지며, 이 氣化의 주체 원리는 理에 있다고 설명한다. 인물의 性은 天이 부여한 동일한 理이며 인간과 만물에 차이가 있는 것은 氣의 正偏通塞 때문이고, 성인과 범인의 구별은 氣의 淸濁 때문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러한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 人性에 순수한 理의 측면만을 가르키는 本然之性과 氣質의 淸濁에 따라 차이가 나는 氣質之性이라는 性의 두 개념을 두게 된 것이다. 濁한 氣質이나 私慾이 인간의 純善한 本性을 가리게 되므로 욕망의 절제와 억제를 통해 도덕적 善을 실현해야 한다는 것이 朱子 修養論의 요지이다.¹⁶⁾¹⁷⁾ 性命을 理氣로 설명한 朱子의 성명관은 그대로 조선 성리학자들에게 수용되면서 四七論爭, 人物性同異論爭 등을 통해 인간의 심성에 대한 탐구의 깊이를 더해갔다. 退溪는 朱子의 ‘心統性情’과 ‘性卽理’의 관점을 이어받아 理氣二元論을 견지하면서 四端·道心·性은 善하지만 七情·人心·情은 氣에 속하여 不善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서는 항상 省察하고 存養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退溪의 性情은 體用관계에 있고, 性은 理發이며 純善하고 존귀하며 無爲하는 반면, 情은 氣發이며 有欲이며 有善惡하며 卑賤하다고 보았다. 性에는 本然之性과 氣質之性이 있으며, 四端이란 情이며 七情 또한 情이라 하였다.¹⁸⁾ 이에 반해 栗谷은 性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情의 善한 면을 말한 것이라 하고 人心·道心の 구분 또한 性命에서 나온 것과 形氣에서 나온 것을 구별한 것일 뿐이고, 四端과 七情의 구분 또한 理만을 언급할 때와 氣를 겸하여 말할 때의 차이인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즉, 栗谷은 人性의 다양한 개념들 모두를 情의 개념 속에 귀속시키고 있다. 이러한 朱子의 형이상학적 성명관을 벗어난 것

12) 최대우. 동무 이제마의 성명관. 범한철학. 2004. 33. pp.81-82.

13) 申泰三 校閱. 論語集註. 서울. 明文堂. 1996. p.245.

14) 金赫濟 校閱. 大學中庸. 서울. 明文堂. 1995. p.2.

15) 최대우. 동무 이제마의 성명관. 범한철학. 2004. 33. p.83.

16) 임현규. 유가의 심성론과 현대 심리철학. 서울. 철학과 현실사. 2001. pp.358-361.

17) 평유란 지음, 정인재 옮김. 중국철학사. 서울. 형설출판사. 2008. pp.427-431.

18) 한자경. 사단칠정론에서 인간의 性과 情. 철학연구. 68. 2005. pp.174-179.

은 茶山에 이르러서이다. 茶山은 理氣개념의 사상적 연원을 孔孟儒學에 두고 있으면서 朱子의 理氣論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 茶山의 性 또한 理로 해석하지 않으면서 性¹⁹⁾에 대한 글자 本意에 따라 심신의 嗜好로 해석하고 있으며 육체적 嗜好로서 기질성을 말하고, 정신적·윤리적 嗜好로서 도의성²⁰⁾을 말하고 있다.²¹⁾ 朱子는 인간의 惡行은 氣稟이나 사사로운 욕망에서 기인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욕망을 경계하고 절제해야 할 것으로 여기나 茶山은 욕망을 도덕적 선행을 위해 억제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삶의 원동력으로 긍정의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好善惡惡하는 것이 인간의 性이지만 인간에게는 心の 權衡으로서 善惡을 선택하는 自主之權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善惡을 판단하고 행하는 것은 인간의 자율에 있는 것이며 天의 주재와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茶山의 성명관은 인간을 형이상학적 성명관에 근거한 관념적 존재가 아니라 神形이 妙습된 실체적인 존재로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朱子의 理氣二元論을 바탕으로 한 형이상학적 성명관을 부정하고²²⁾ 先秦儒學의 上帝思想에서 그 이론적 근거를 두고 있다.²³⁾ 東武에게 일정한 영향을 주었다고 전해지는 芸菴은 『明善錄』에서 理氣, 性情, 體用이 별개의 것이 아닌 하나라고 하면서 至誠이 발현하지 않은 것이 天에서의 理이고 사람에게서는 性이며, 이미 발현한 것은 天에서의 氣이고 사람에게서는 情이라고 하였다.²⁴⁾ 理氣와 性情의 本體는 순수하게 善하지만 그

것이 발현될 때(用) 善惡이 생길 수 있다고 하면서 性情의 관계를 情은 性에서 나오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지만 朱子처럼 二元論의인 體用의 관계가 아닌 體와 用을 하나로 보는 一元的 體用關係로 보고 있다. 즉, 心性情은 하나로 만물의 이치를 구비하고 있으며 이 理體에 혼연일체한 것을 性이라하고, 性이 만물에 감응하여 각각에 조리가 있는 것을 情이라 하였다.²⁵⁾

東武의 철학구조는 儒學을 토대로 하고 있으나 기존의 조선 유학체계와는 성격을 달리한다.²⁶⁾²⁷⁾²⁸⁾ 조선조 유학은 朱熹의 성리학적 구조 위에서 이루어져서 인간 존재를 포함한 우주만물의 본체론적 해명을 위해 理氣論을, 인성론적 측면에서는 性善說을, 수양론적 측면에서는 居敬窮理의 방법을 기반으로 하고 있었다. 이에 비해 東武는 인간 존재가 四象으로 이루어진다고 파악하였으며 인성론적 측면에서는 기본적으로 인간본성의 善함을 수용하지만 그 근거를 기존의 성리학에서 하늘의 권위에 의탁한 것과는 다르게 인간의 자연성과 자율성에 두고 있다. 그리고 수양론에 있어서도 기존의 居敬窮理의 방법에서 탈피하여 마음의 中和를 이루어 심신의 건강을 궁극적으로 추구하고 있다.²⁹⁾ 東武의 성명관이 儒學의 性命觀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은 天이 인간에게 性命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근거를 두고 있다. 性命을 이해하는 東武의 이해 방식은 性命을 구조와 기능적 측면에서 이해하고 있으면서 東武는 인간을 독립적인 개체가 아니라 天機와 人事라는 구조적 틀 속에서 존재한다고 파악하고 있다.³⁰⁾ 天機는 인간이 존재하는 시공간적 구조를 의미하며, 人事는 이러한 天機의 구조

19) 김윤기. 이제마 철학구조와 몸의 윤리-주희와의 비교를 통해. 국민윤리연구. 2005. 60. p.28. “性’은 ‘心’字와 ‘生’字의 결합으로, 心이 사유능력이나 도덕적 판단 능력을 의미한다면, 生은 나면서부터 갖게 되는 자연스런 욕구나 본능을 의미한다. 따라서 그 의미를 心에 두느냐, 生에 두느냐에 따라 입장이 달라진다.”

20) 정신적·윤리적 기호로서의 도의성이란 선을 좋아하고 악을 미워하며 덕을 좋아하고 더러운 것을 부끄럽게 여기는 속성을 일컫는다.

21) 최대우. 동무 이제마의 성명관. 범한철학. 2004. 33. pp.83-85.

22) 朱紅星, 李洪淳, 朱七星. 한국철학사상사. 서울. 예문서원. 1994. pp.391-395.

23) 최대우. 동무 이제마의 성명관. 범한철학. 2004. 33. pp.86-87.

24) 윤종빈, 김영목. 사상의학의 역철학적 기초. 대전. 문경출판사. 2004. pp.92-99.

25) 方正均, 丁彰炫. 芸菴 韓錫地 思想 研究. 慶熙大學校大學院. 2003. pp.21-31.

26) 송시원, 강정수. 유학의 흐름과 河圖洛書 및 사단칠정을 통한 東武 李濟馬의 사상인 형성에 대한 연구. 동의생리병리학회지. 2005. 19(1). p.37.

27) 宋一柄, 李文宰. 四象醫學의 四端七情論에 對한 考察. 慶熙大學校大學院. 1980. pp.44-45.

28) 허훈. 동무 이제마의 이기성정론에 관한 연구. 동양철학연구회. 2006. p.224.

29) 김윤기. 이제마 철학구조와 몸의 윤리-주희와의 비교를 통해. 국민윤리연구. 2005. 60. pp.24-25.

30) 박석준. 이제마 천기론의 구조(1). 의철학연구. 2007. 4. pp.20-21.

속에서 존재하는 인간의 존재방식을 말하는 것이다. 東武에 있어서 性과 命은 天으로부터 인간에게 주어지며, 그것은 慧覺과 資業으로 나타난다.³¹⁾ 그러므로 慧覺과 資業은 道德의 근원이며, 慧覺과 資業의 보존 여부에 따라 인간의 존재가치가 결정된다. 東武의 性命에 대한 天人性命, 事心身物의 복합적 사원구조로서의 이해는 天人合一을 지향하는 종래의 입장³²⁾과 비교할 때 단순한 구조화가 아니라 구조를 형성하는 몸³³⁾ 자체에 天人관계를 유지하는 기능인 작위 능력을 갖추고 있다. 儒學의 天人관계는 性을 통해 유지되며, 학문적 입장에 따라 이 性을 理, 또는 嗜好 등으로 해석하지만, 그 관계 주체는 공통적으로 인간의 道心이라 할 수 있으나 東武에 있어서의 天人관계는 관념이 아닌 몸의 구체적인 작위활동에 의해 이루어지며 몸은 단순히 감각적 기능만이 아니라 고도의 정신활동이나 도덕적 기능까지 갖추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³⁴⁾

인간의 생명은 氣液이라는 하늘로부터 받는 에너지와 水穀이라는 땅의 에너지를 통해 영위된다. 肺脾肝腎에 의해 생명에너지를 받아들이는 것은 성인이나 범인이나 모두 같지만, 그 성능에 있어서는 사람마다 다르다. 또 肺脾肝腎은 생명 에너지를 받아들여 신체를 관장할 뿐만 아니라, 仁義禮智와 같은 도덕적 덕목까지 관장한다.³⁵⁾ 몸의 작위능력은 보편성으로 주어지지만 구체적인 도덕 행위는 자율의 문제로 도덕행위의 실행여부는 각자의 의지에 달려있는 것이다. 그래서 성인과 범인은 선천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남을 속이려는 마음을 극복하여 본성

을 기르고 正命을 바로 세우는 노력에 따라 결정된다. 그런데 東武는 인간의 몸을 기운의 편차에 따라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짓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선천적으로 哀怒喜樂의 性情의 失中을 피할 수 없는 존재이다. 이러한 불완전한 4體質로서의 인간은 人事의 자율적 修身³⁶⁾을 통해 中節을 맞춰나갈 수 있다고 하면서 인간이 불완전한 몸의 한계를 극복하면서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 근거를 主宰心으로서의 心³⁷⁾에 자율능력에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 이로써 人間은 心의 主宰기능으로 天機를 살피고, 人事를 行하며, 邪心과 怠行을 경계하여 正성과 公경을 다함으로써 선천적인 過不及을 극복할 수 있게 된다. 곧 東武에게 있어 도덕실현의 여부는 天理나 上帝天의 命에 있는 것이 아니고, 체질적으로 불완전한 편향성이 각자에게 주어진 몸으로 存其心養其性, 修其身立其命의 작위과정으로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이다.³⁸⁾

기존의 儒學에서는 性은 理로서 이것이 현실 속에서 드러날 때에는 仁義禮智로 표출되는 반면, 情은 氣의 변화로 나타나는 인간의 다양한 감정상태의 표현으로서 喜怒哀樂의 感情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기에 理와 氣, 그리고 未發之性과 已發之性을 나누어 인식하였다.³⁹⁾ 그러나 東武는 기존 儒學에서의 性情觀과는 다르게 心을 太極이라 규정하고 거기에서 心身의 知行을 主宰하는 기능을 담당한다고 보고 있으며, 耳目鼻口의 인지기능으로 감응되는 哀怒喜樂과 仁義禮智를 담고 있는 肺脾肝腎에 의해 드러나는 哀

31) 최대우. 동무 이제마의 성명관. 범한철학. 2004. 33. pp.87-88.
 32) 김경수, 이수경, 이의주, 고병희, 송일병. 東醫壽世保元과 格致藁의 四象構造에 對한 考察. 사상체질의학회지. 2004. 16(2). p.42.
 33) 여기서 '구조를 형성하는 몸'이란 天機를 察하는 耳目鼻口, 人事를 行하는 肺脾肝腎, 인체 前面部를 구성하면서 行其知하는 額臆臍腹, 인체 後面部를 구성하면서 行其行하는 頭肩腰臀의 구체적인 신체의 16부위에 해당하는 몸을 일컫는다.
 34) 최대우. 동무 이제마의 성명관. 범한철학. 2004. 33. pp.90-92.
 35) 김윤기. 이제마 철학구조와 몸의 윤리-주희와의 비교를 통해. 국민윤리연구. 2005. 제60호. p.36.

36) 전국한의학대학교 사상의학교실. 四象醫學. 서울. 集文堂. 1997. p.438. 『東醫壽世保元』 「四端論」에서 “太少陰陽之臟局短長, 陰陽之變化也. 天稟之已定, 固無可論, 天稟之已定之外, 又有短長, 而不全其天稟者則人事之修不修, 而命之傾也, 不可不慎也.”라 하였다.
 37) 전국한의학대학교 사상의학교실. 四象醫學. 서울. 集文堂. 1997. p.442. 『東醫壽世保元』 「臟腑論」에서 “心爲一身之主宰 負于背心 正向臍中 光明瑩徹.”이라 하였다. 東武의 心에 대한 인식은 五臟 중 하나로서 기능하는 육체적인 心이 있으며, 또 인간의 자율성을 主宰하는 도덕적인 心이 있다.
 38) 최대우. 동무 이제마의 성명관. 범한철학. 2004. 33. pp.94-100.
 39) 孫祥坤. 儒學者들의 心性情과 李濟馬의 性情氣에 관한 문헌적 고찰. 상지대학교, 1997. p.42.

怒喜樂을 氣로 규정하여 외부세계를 耳目鼻口를 통해 인지할 때 일어나는 기운의 변화를 順動之氣인 性으로, 肺脾肝腎으로부터 몸을 통해 외부세계로 發用되어 나갈 때 일어나는 기운의 변화를 逆動之氣인 情으로 표현하였다. 『東醫壽世保元』 「性命論」을 逆順⁴⁰⁾의 개념으로 다시 살펴보면 天機는 順으로, 그리고 人事는 逆으로 작용하는데 好善이 無雙한 耳目鼻口를 통해 天機를 받아들이는 好善의 順기능⁴¹⁾이 性으로써 개인의 감정상태나 욕심이 개입되기 전의 본래 인간적인 성품이라 볼 수 있으며, 惡惡이 無雙한 肺脾肝腎을 통해 人事를 행하는 惡惡의 逆기능⁴²⁾은 情으로써 내가 주체가 되어 주위환경에 대응하면서 자율성을 갖고 선택하는 그때그때의 감정변화 내지는 자주적인 선택 과정이라 볼 수 있다.

이로써 東武의 性情에 대한 인식을 정리하자면, 초기에는 性情을 理와 氣의 차원에서 구분하고 있었으나 이후 『東醫壽世保元』에 이르러서는 性도 氣의인 차원에서 함께 論해지면서 性은 인간의 내면화된 기운의 편향성을 일컫는 반면 情은 자유의지와 선택을 기반으로 표면화되는 기운의 변화를 지칭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性命論에서 언급된 四象構造

1) 天人性命의 관점에서 본 心身腹背의

40) 김만산. 周易의 관점에서 본 四象醫學原理(1)-性命論에 관하여. 한국동서철학회, 1999. p.9. “여기서 逆順과 性情에 대한 관계를 이해하기 위하여 ‘順逆’에 대한 字意를 『周易』에서 살펴보면 『周易』 「說卦」 3章에서 ‘數往者는 順하고, 知來者는 逆하니, 是故로, 易은 逆數也.’라고 하였는데 易理에 있어서 ‘順’이란 時間的으로는 未來에서 過去를, 空間的으로는 上(天)에서 下(地)를 志向하는 作用性을, 象數學的으로는 9에서부터 1로 統一되어가는 과정을 표현한 것이고, ‘逆’이란 時間的으로는 過去에서 未來로, 空間的으로는 下에서 上으로 志向하는 作用性을, 象數學的으로는 1에서부터 9로 發展되어가는 과정을 표현한 것이다. 이는 마치 陰陽이 上升·下降하여 交流 合德하는 것과 같다.”

41) ‘好善의 順기능’이란 내게 맞는 것을 받아들이는 기능을 일컫는 것으로, 여기서 好惡의 개념은 내가 주체가 되어 취사선택하는 기호에 해당될 것이며, 善惡은 공적인 도덕적 가치 개념이 들어간 當爲에 해당될 것이다.

42) ‘惡惡의 逆기능’이란 내게 맞지 않는 것을 능동적으로 거부하고 배척하는 기능을 일컫는다.

구조

인체의 前面部인 額臆臍腹의 前腹部는 心과 天機가 관계를 맺고 있는 부위로 여기서는 天의 속성(天機)을 耳目鼻口를 통해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性氣가 작용하는 부위이며, 額臆臍腹을 통해 稟賦받은 性을 제대로 밝히고 양성하면서 知를 쌓아나가는 과정(行其知)을 수행하게 된다. 쉽게 말하면 인체 前面部를 통하여 외부적인 상황과 자극을 인지하는 과정에서 자신을 배제한 객관적인 입장에서 發하는 신체의 기운의 변화가 性氣이며 이러한 性氣의 작용을 額臆臍腹을 통해 知를 쌓아나가는 과정이 籌策, 經綸, 行檢, 度量의 慧覺을 이루는 과정이며, 이 과정이 어그러지면 心之過의 邪心에 의해 性이 가리워져 驕矜伐夸之 心에 빠지게 된다. 慧覺과 邪心은 모두 心과 性의 작용 범위에 해당되며, 慧覺은 자기 내면의 知를 存其 心養其性의 과정을 통해 밝히면서 스스로 자신을 완성해나가면서 이루어낸 결과라 할 수 있다.

인체의 後面部인 頭肩腰臀의 後背部는 身과 人事가 관계를 맺고 있는 부위로 여기서는 肺脾肝腎이 人事에 處하여 情을 발휘하고 頭肩腰臀을 통해서 四臟에 쌓인 情을 체외로 표출하면서 몸소 실천하여 인간 관계 및 사회적 관계를 맺고 功을 쌓아나가는 과정(行其行)을 수행하게 된다. 또, 情氣의 작용은 頭肩腰臀을 통해 몸소 行業해 나가는 과정으로 識見, 威儀, 材幹, 方略의 資業을 이루는 과정인 것이며, 이 과정이 어그러지면 身不及의 怠心으로 정상적인 情氣의 작용에서 벗어나 奪侈懶竊之 心에 빠지게 된다. 資業과 怠心은 모두 身과 情의 작용범위에 해당되며, 資業은 修其身立其命의 현실적인 실천과정을 통하여 功과 業績을 쌓아 자신의 역량을 사회적으로 베풀면서 제 3자의 입장에서 바라본 자신을 완성해나가는 과정으로 이루어낸 결과라 할 수 있다.

즉 性情은 자신이 堯舜과 같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체질적인 편향성과 함께 자기 本來性으로 부여받은⁴³⁾ 心身의 본바탕이며, 이러한 편향성을 지닌 불

43) 전국한의과대학 사상의학교실. 四象醫學. 서울. 集文堂. 1997. p.435. 『東醫壽世保元』 「性命論」에서 “耳目鼻口, 人皆可以爲堯舜. 肺脾肝腎, 人皆可以爲堯舜.”이라 하였으며, 이어서 “人之耳目鼻口, 好善之心, 以衆人耳目鼻口論之則堯舜未爲加一鞭. 人之肺脾肝腎 惡惡之心, 以堯舜肺脾肝

心 / 性(知) / 腹						身 / 情(行) / 背					
性(知)			天(入)			人(出)			命(行)		
頤	籌策	驕心	耳	天時	聽	肺	事務	達	頭	識見	奪心
臆	經綸	矜心	目	世會	視	脾	交遇	合	肩	威儀	侈心
臍	行檢	伐心	鼻	人倫	嗅	肝	黨與	立	腰	材幹	懶心
腹	度量	夸心	口	地方	味	腎	居處	定	臀	方略	竊心
博通 / 存心養性			大同			各立			獨行 / 修身立命		

표 1. 天人性命의 前後腹背 配屬

완전한 性情을 어떻게 中節을 이루면서 살아가느냐의 문제는 자신의 자유의지의 선택과정으로 頤臆臍腹과 頭肩腰臀의 存心養性, 修身立命을 통해 堯舜과 같은 知行을 이룰 수도 있고 전혀 그렇지 못할 수도 있는 것⁴⁴⁾이다.

이를 인체의 前後腹背에 배속시키면 위 표 1.과 같이 天人性命의 구조 속에서 天과 性은 人體의 前面部인 腹部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며, 人과 命은 人體의 後面部인 背部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위 내용을 간략하게 도표화시키면 위 표 1. 같다.

3. 欺侮助保에 의해 형성된 哀怒喜樂之氣로 파악한 天人性命

腎論之則衆人未爲少一鞭. 人皆可以爲堯舜者, 以此.”라 하였다.

- 44) 전국의학과대학 사상의학교실. 四象醫學. 서울. 集文堂. 1997. p.435. 『東醫壽世保元』 「性命論」에서 “頤臆臍腹, 人皆自不爲堯舜. 頭肩腰臀, 人皆自不爲堯舜.”이라 하였으며, 이어서 “人之頤臆臍腹之中, 誣世之心, 每每隱伏也. 存其心養其性然後, 人皆可以爲堯舜之知也. 人之頭肩腰臀之中 罔民之心 種種暗藏也. 修其身立其命然後, 人皆可以爲堯舜之行也.”라 하였다.
- 45) 전국의학과대학 사상의학교실. 四象醫學. 서울. 集文堂. 1997. p.438. 性情의 편향성은 太少陰陽人이 臟腑大小의 偏差를 타고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天稟으로 타고나는 것이며, 그러한 天稟의 偏差를 中節에 맞추는 과정은 개인에게 달려있다. 『東醫壽世保元』 「四端論」에서 “太少陰陽之臟局短長, 陰陽之變化也. 天稟之已定, 固無可論. 天稟之已定之外, 又有短長而, 不全其天稟者則人事之修不修而, 命之傾也. 不可不慎也.”라 하였다.

1) 太少陰陽人의 哀怒喜樂之氣와 欺侮助保와의 관계

太少陰陽人이 天人性命의 각 분야에서 보이는 長短點과 상호간에 어떤 관계와 의미가 있는지 연구하기 위하여 四象體質醫學에서 인체 생리기능과 병리기전을 설명하는데 그 매개 역할을 하는 기운으로 언급되어지는 哀怒喜樂之氣와 그 哀怒喜樂之氣를 일으키는 원인으로 작용하는 欺侮助保를 근간으로 天機와 人事, 慧覺과 資業에서의 각 항목이 갖는 의미와 각 體質에서의 각 항목과의 관계를 재조명하고자 한다.⁴⁶⁾

우선 哀怒喜樂과 欺侮助保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東醫壽世保元』 「擴充論」 첫 구절에 太少陰陽人이 耳目鼻口로 天機를 察할 때 사람들이 서로 속이고(欺), 업신여기고(侮), 서로 돕고(助), 보호(保)해주는 모습을 접할 때 哀怒喜樂의 性氣가 생긴다고 하였다.⁴⁷⁾ 즉, 자신이 직접적으로 관련을 맺고 있지 않은

46) 金亨泰 譯. 東醫壽世保元講義. 서울. 도서출판정담. 1999. pp.99-100.

47) 전국의학과대학 사상의학교실. 四象醫學. 서울. 集文堂. 1997. p.438. 『東醫壽世保元』 「擴充論」에서 “太陽人, 哀性遠散而怒情促急. 哀性遠散者, 太陽之耳, 察於天時而哀衆人之相欺也. 哀性, 非他, 聽也… 少陽人, 怒性宏抱而哀情促急. 怒性宏抱者, 少陽之目, 察於世會而怒衆人之相侮也. 怒性, 非他, 視也… 太陰人, 喜性廣張而樂情促急. 喜性廣張者, 太陰之鼻, 察於人倫而喜衆人之相助也. 喜性, 非他, 嗅也… 少陰人, 樂性深確而喜情促急. 樂性深確者, 少陰之口, 察於地方而樂衆人之相保也. 樂性, 非他, 味也.”라 하였다.

객관적 외부 세계에 대한 感應으로 性氣가 動하게 되는데, 天時를 속일 때 哀性이, 世會에서 업신여길 때 怒性이, 人倫관계에서 도울 때 喜性이, 地方에서 보호할 때 樂性이 형성된다고 하였다. 또 『東醫壽世保元』 「擴充論」 첫 구절에서 또 太少陰陽人의 肺脾肝腎이 人事를 行할 때 사람들이 자신을 업신여기고(侮), 속이고(欺), 자신을 보호해주고(保), 도와줄(助) 때 哀怒喜樂의 情氣가 생긴다고 하였다.⁴⁸⁾ 즉, 자신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주관적 외부세계에 대한 반응, 쉽게 말해 내가 몸담고 있는 환경으로부터의 직접적인 자극에 대한 반응으로 情氣가 動하게 되는데, 事務를 行함에 속임(欺)을 당할 때 哀情이, 交遇를 行함에 무시(侮)를 당할 때 怒情이, 黨與를 行함에 도움(助)을 받을 때 喜情이, 居處를 行함에 보호(保)를 받을 때 樂情이 형성된다고 하였다.

다음으로 太少陰陽人과 欺侮助保의 관계를 보면 『東醫壽世保元』 「擴充論」에서 ‘太陽人의 脾가 交遇를 잘하기 때문에 交遇에서는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으나 太陽人의 肝은 黨與에 雅立하지 못한다.’⁴⁹⁾ 그렇기 때문에 黨與에서 업신여김을 당한다.⁵⁰⁾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서 생각해볼아야 할 점은 ‘太陽之脾-交遇-不侮’의 개념은 지금까지 설명해왔던 방식 그대로 짝을 이루고 있으나, ‘太陽之肝-黨與-侮’의 개념은 이전 설명 방식대로라면 ‘太陽之肝-黨與-不助’로 개념이 연결되어야 타당한 구조가 될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人事(黨與)에서 不能함으로써 받게 되는 인간관계의 부조화(不助)에 人事(交遇)에서 能함으로

서 형성되는 인간관계의 역인 ‘侮’로 표현되고 있다. 그리고 이어서 肝小한 太陽人에게 不及한 人事인 黨與에서 발생하는 감정상태가 肝의 喜情이 아닌 太陽之脾의 怒情이 폭발한다고⁵¹⁾ 하였다. 이것은 怒情으로 交遇를 行한다면 전혀 탈이 없을 것이나 만약 이 怒情으로 黨與를 行한다면 정상적인 怒情이 발휘되지 못하고 폭발적인 감정 상태로서의 怒情이 드러나게 된다고 설명한 것이다. 「擴充論」의 다음 문장에서 ‘太陽人의 怒情으로 交遇를 잘 行할 수 있으나 黨與는 怒情으로 다스릴 수 없다. 만약 怒情을 이용해서 黨與를 다스리고자 한다면 黨與를 行하는데 무익할 뿐만 아니라 (怒情이 폭발하여) 肝이 傷한다.’⁵²⁾라고 부연설명을 하였다. 또 「擴充論」에서 ‘太陽人이 交遇를 行함에 삼가하여 신중하게 하므로 생소한 交遇人을 대할 때에는 항상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을까 근심 걱정하는 怒心이 있다. 이 마음은 상도를 굳게 지키고자하는 敬心에서 나온 마음이니 지극히 좋하지 않을 수 없다.’⁵³⁾라고 하면서 이어서 ‘太陽人은 또 黨與를 소홀히 여겨 매번 가깝고 친밀한 黨與人으로부터 모함을 받는 상황에 처해 偏急한 怒情으로 (肝)臟을 傷하게 된다. 그 이유는 太陽人의 친구를 골라서 사귀는 마음이 넓지 못하기 때문이다.’⁵⁴⁾라고 하였다. 위 세 조문을 종합하여 해석하면 太陽人이 黨與를 行할 때 雅立하지 못함으로써 자신이 交遇에서 能한 방법론인 太陽之脾의 怒情으로 黨與를 다스리고자하기 때문에 黨與에서 불협화음이 발생하고 太陽人은 그에 대해 黨與로부터 업신여김(侮)을 받았다는 감정이 들게 되는 것이다.

48) 전국한의학대학교 사상의학교실. 四象醫學. 서울. 集文堂. 1997. p.438. 『東醫壽世保元』 「擴充論」에서 “太陽人, 哀性遠散而怒情促急… 怒情促急者, 太陽之脾, 行於交遇而怒別人之侮己也. 怒情, 非他, 怒也. 少陽人, 怒性宏抱而哀情促急… 哀情促急者, 少陽之肺, 行於事務而哀別人之欺己也. 哀情, 非他, 哀也. 太陰人, 喜性廣張而樂情促急… 樂情促急者, 太陰之腎, 行於居處而樂別人之保己也. 樂情, 非他, 樂也. 少陰人, 樂性深確而喜情促急… 喜情促急者, 少陰之肝, 行於黨與而喜別人之助己也. 喜情, 非他, 喜也.”라 하였다.

49) 전국한의학대학교 사상의학교실. 四象醫學. 서울. 集文堂. 1997. p.438. 『東醫壽世保元』 「擴充論」에서 “太陽之脾, 能勇統於交遇, 而太陽之肝, 不能雅立於黨與.”라 하였다.

50) 전국한의학대학교 사상의학교실. 四象醫學. 서울. 集文堂. 1997. p.439. 『東醫壽世保元』 「擴充論」에서 “太陽之怒能勇統於交遇, 故交遇不侮也. 太陽之喜, 不能雅立於黨與, 故黨與侮也.”라 하였다.

51) 전국한의학대학교 사상의학교실. 四象醫學. 서울. 集文堂. 1997. p.439. 『東醫壽世保元』 「擴充論」에서 “是故, 太陽之暴怒, 不在於交遇, 而必在於黨與也.”라 하였다.

52) 전국한의학대학교 사상의학교실. 四象醫學. 서울. 集文堂. 1997. p.439. 『東醫壽世保元』 「擴充論」에서 “太陽之交遇可以怒治之, 而黨與不可以怒治之. 若遷怒於黨與, 則無益於黨與而肝傷也.”라 하였다.

53) 전국한의학대학교 사상의학교실. 四象醫學. 서울. 集文堂. 1997. p.440. 『東醫壽世保元』 「擴充論」에서 “太陽人 謹於交遇, 故恒有交遇生疎人慮患之怒心. 此心 出於秉彝之敬心 莫非至善.”이라 하였다.

54) 전국한의학대학교 사상의학교실. 四象醫學. 서울. 集文堂. 1997. p.440 『東醫壽世保元』 「擴充論」에서 “而輕於黨與故, 每爲親熟黨與人所陷而, 偏怒傷臟, 以其擇交之心, 不廣故也.”라 하였다.

黨與란 집단 구성원 간의 끈끈한 공동체 의식 속에서 어려움을 서로 돕고 즐거움은 함께 나누는 인간관계로 만약 怒情(慮患之怒心)으로 각박하게 예절을 강요하고 과도하게 원칙을 고수한다면 주변 黨與人과 융화되지 못할뿐더러 黨與에서 고립됨으로써 黨與人으로부터 모함을 받고 있다고 스스로 인식될 수 있을 정도의 상황에 이르게 될 수 있을 것이다. 즉, 다른 사람이 나를 업신여김으로써 발생하는 怒情 중에서 太陽人의 交遇에서의 促急한 怒情과 黨與에서의 爆發的인 怒情은 그 怒情이 발생하는 시점에서 차이가 있다. 交遇에서의 促急한 怒情은 다른 사람이 나를 업신여기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미연에 交遇의 상황에서 두루두루 交遇人들과 소통함으로써 怒情이 과도하게 발생하는 상황을 만들지 않는 쪽으로 처신하게 되는 것이며, 黨與에서의 爆發的인 怒情은 太陽人의 喜情이 不及함으로 黨與에서 제대로 처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서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러한 상황에서 다시 怒情으로 黨與를 다스리고자 하기 때문에 거듭 업신여김을 당하는 상황에 빠지게 됨으로써 怒情이 黨與에서 暴怒하게 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다른 체질에 있어서도 少陰人이 交遇를 行할 때 勇統하지 못함으로써 자신이 黨與에서 能한 방법론인 少陰之肝의 喜情으로 交遇를 다스리고자 하기 때문에 交遇에서 불협화음이 발생하고 少陰人은 그에 대해 交遇로부터 도움(助)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감정이 들게 될 것이다. 交遇란 喜情으로 도움을 주고받을 대상이 아닌 것이며 상호간의 자기절제와 상대방을 존중하는 틀 안에서 가볍게 흘러가면서 열린 관계 속에서 소통이 되어야 하는 대상인 것이다. 만약 喜情(擇交之喜心)으로 나에게 맞는 사람을 선별하여 폐쇄적으로 교류를 하고자 하고 또 그 交遇人으로부터 자신의 기준에 따라 도움받기를 기대한다면 주변 交遇人으로부터 무절제하고 분위기와 약도 못하는 사람처럼 보일 것이다. 다른 사람이 나를 도와주는 것에 대해 발생하는 喜情 중에 少陰人의 黨與에서 促急한 喜情과 交遇에서 방자한 喜情(浪喜) 사이에도 그 喜情이 발생하는 시점에서 차이가 있다. 黨與에서의 促急한 喜情은 黨與의 울타리 안에서 자

신과 맞는 사람을 선별하여 親熟한 관계를 돈독히 하는데 노력하므로 다른 사람이 나를 도와주는 것을 즐길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交遇에서의 방자한 喜情은 少陰人의 怒情이 不及함으로 交遇에서 제대로 처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交遇人으로부터 무시당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러한 상황에서 다시 喜情으로 交遇에 처신하여 부적절하게 도움을 요청하고 무리하게 청탁을 하는 상황에 빠지게 됨으로써 喜情이 交遇에서 浪喜하게 되는 것이다.

또, 少陽人이 居處를 行할 때 恒定하지 못함으로써 자신이 事務에서 能한 방법론인 少陽之肺의 哀情으로 居處를 다스리고자 하기 때문에 居處에서 불협화음이 발생하고 少陽人은 그에 대해 居處로부터 기만(欺)을 당하고 있다는 감정이 들게 될 것이다. 居處란 변치 않는 신뢰를 바탕으로 형성된 집단 안에서 항상 보호받고 안정할 수 있는 공간인데 만약 哀情(出外興事務之哀心)으로 바깥일 하듯이 인정사정없이 효율과 발전성만 지향한다면 주위 居處人으로부터 감정이 메말라 냉혹하고 항상 일밖에 모르고 따뜻하게 보호받고 의지할 수 없는 사람으로 비춰질 것이다. 그런 관계 속에서 少陽人은 居處에서 보호하고 보호받음으로써 항상 안정된 관계를 유지하여야 할 居處人들로부터 외면 받음으로써 가까운 주위 사람들로 부터 기만당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될 것이다. 다른 사람이 나를 기만하는 것에 대해 발생하는 哀情 중에 少陽人의 事務에서 促急한 哀情과 居處에서 暴發하는 哀情 사이에도 그 哀情이 발생하는 시점에서 차이가 있다. 事務에서 促急한 哀情은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때그때 해결하고자 노력하므로 다른 사람이 나를 속이거나 일을 그르칠 여지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居處에서 暴發하는 哀情은 少陽人의 樂情이 不及함으로써 居處에서 안주하지 않음으로 居處人들로부터 외면당하고 모함을 받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러한 상황에서 다시 哀情으로 居處를 다스리고자 하기 때문에 거듭 기만당하는 상황에 빠지게 됨으로써 哀情이 居處에서 暴哀하게 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太陰人이 事務를 行할 때 敏達하지 못함으로써 자신이 居處에서 能한 방법론인 太陰之腎

의 樂情(內做居處之樂心)으로 事務를 다스리고자하기 때문에 事務에서 불협화음이 발생하고 太陰人은 그에 대해 事務로부터 보호(助)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감정이 들게 될 것이다. 事務란 한 치의 사사로움 없이 公正하게 일을 하는 것으로 親疎의 인간관계가 개입할 여지가 없는 대상이다. 그러한 事務를 行하는 場에서 사사로운 자신을 보호해줄기를 바라는 행위나 아는 사이이니까 자기만은 봐달라는 식의 태도는 주변 事務人으로부터 엄치없는 행위로 비춰질 것이다. 그런 관계 속에서 太陰人은 事務에서 주위사람들로부터 함께 일을 하는데 부적절한 대상으로 낙인찍히면서 太陰人 스스로 주위사람들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될 것이다. 다른 사람이 나를 보호해주는 것에 대해 발생하는 樂情 중에 太陰人의 居處에서 促急한 樂情과 事務에서의 방만한 樂情 사이에도 그 樂情이 발생하는 시점에 차이가 있다. 居處에서의 促急한 樂情은 항상 안을 관장하여 내실을 기하는데 노력하므로 주변 여건이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보호 받고 있다는 느낌으로 안정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事務에서의 방만한 樂情은 太陰人의 哀情이 不及함으로 事務에서 제대로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事務人들로부터 기만당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러한 상황에서 다시 樂情으로 事務에 처신하여 자신은 일을 하지 않으면서 남들이 자신을 보호해주면서 일을 대신 해주기를 기대하는 상황에 빠지게 됨으로써 樂情이 事務에서 浪樂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으로 哀怒喜樂의 性情을 일으키는 원동력인 欺侮助保와 太少陰陽人과의 관계를 알아보았는데 太陽人은 직관적으로 사람들이 속이는 행위에 대해 감응하는 것이 탁월하며 남들이 나를 업신여기는 상황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이해할 수 있으며, 少陽人은 감성적으로 사람들이 업신여기는 행위에 대해 감응하는 것이 탁월하며 남들이 나를 속이는 상황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할 수 있겠다. 그리고 太陰人은 감각적으로 사람들이 돕는 행위에 대해 감응하는 것이 탁월하며 남들이 나를 보호해주는 상황을 만들어 가는데 대해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할 수 있으며, 少陰人의 사고는 사람들이 보호해주는 행위에 대해 감응하는 것이 탁월하며 남들이 나를 도와주

는 상황을 만들어 가는데 대해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이해할 수 있다.⁵⁵⁾

欺侮助保에 의한 哀怒喜樂之氣를 중심으로 天人性命의 性情知行의 각 항목을 배속하여 도표화하면 아래 표 2와 같다.

性은 외부세계의 정보를 내가 받아들이면서 작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內로 표시하였으며, 情은 내가 외부세계에 영향을 끼치면서 발휘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外로 표시하였다. 또, 知는 내 스스로 자신을 완성해 나가는 과정에서 형성되는 慧覺이기 때문에 裏로 표시하였으며, 行은 남이 나를 바라보는 시각에서 나를 완성해 나가는 과정에서 형성되는 資業이기 때문에 表로 표시하였다. 그리고 太少陰陽의 배속은 각 체질이 타고난 存在論的인 시각에서의 배속이 아닌 자신의 단점을 극복하여야 하는 命, 즉 當爲論的인 시각에서의 배속을 따랐다.

2) 欺侮助保에 의한 哀怒喜樂之氣와 邪心·慧覺과 怠行·資業과의 상관관계 연결

哀怒喜樂의 性情은 주위사람들이 서로 欺侮助保하는 것을 耳目鼻口가 聽視嗅味할 때 哀怒喜樂之性이, 내가 肺脾肝腎으로 人事를 行할 때 타인이 나에게 欺侮助保하는 것을 접하고 哀怒喜樂之情이 일어나게 된다. 그리고 知行을 行함에 있어 타고난 性情을 바탕으로 세상에 자신의 존재를 실현함에 자신의 장점은 잘 보존하고 단점은 부단히 극복하는 노력여하에 따라 性情의 過不及 없이 세상과 자신의 조화를 이루는 中和⁵⁶⁾의 妙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東武의 知行論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은 결코 누구나 나면서부터 博通한 知⁵⁷⁾, 正行⁵⁸⁾의 行을 타고난 사람은 없기

55) 여기에서 太少陰陽人의 인지기능을 직관, 감성, 감각, 사고의 네 가지로 나누어 설명한 것은 옴의 심리학을 四象醫學과 연관시켜 설명한 김명근의 『애노희락의 심리학』(김명근, 개마고원, 서울, 2003, pp.49-69.)에서 잠시 빌어 온 것이다.

56) 전국한의과대학 사상의학교실, 四象醫學, 서울, 集文堂, 1997, p.438. 『東醫壽世保元』 「四端論」에서 “喜怒哀樂之未發, 謂之中, 發而皆中節, 謂之和. 喜怒哀樂未發而恒戒者, 此非漸近於中者乎. 喜怒哀樂已發而自反者, 此非漸近於節者乎.”라 하였다.

57) 전국한의과대학 사상의학교실, 四象醫學, 서울, 集文堂.

內外表裏 氣	性	內	知	裏	情	外	行	表
哀	天時	耳	籌策	頷	事務	肺	識見	頭
	相欺	太陽	驕意	太陰	欺己	少陽	擅(奪)心	少陰
怒	世會	目	經綸	臆	交遇	脾	威儀	肩
	相侮	少陽	矜慮	少陰	侮己	太陽	侈心	太陰
喜	人倫	鼻	行檢	臍	黨與	肝	材幹	腰
	相助	太陰	伐操	太陽	助己	少陰	懶心	少陽
樂	地方	口	度量	腹	居處	腎	方略	臀
	相保	少陰	夸志	少陽	保己	太陰	慾(竊)心	太陽

표 2.性情知行과 哀怒喜樂과의 관계

때문에 반드시 부단한 存其心養其性, 修其身立其命의 과정을 통해 바른 知行을 쌓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위 도표에서 耳가 天時를 察할 때 세상 사람이 相欺하는 것을 듣고 哀性이 일어나고⁵⁹⁾ 또 肺가 事務를 行할 때 나를 欺己하는 것을 접하고 哀情이 일어난다⁶⁰⁾는 것은 『東醫壽世保元』 「擴充論」의 원문에서 언급된 내용이다. 그리고 知行에 있어서 驕心은 相欺에 대한 哀性이 中을 지키지 못하고 마음이 과도

한 욕심에 의해 偏及된 결과물이고 籌策은 心之過를 경계하면서 哀性이 中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存心養性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것이며, 擅(擅)心은 欺己에 대한 哀情이 節을 지키지 못하고 몸의 안일함에 빠진 결과물이고 識見은 身不及을 반성하면서 哀情이 節度를 지키도록 修身立命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것이라는 것은 『東醫壽世保元』의 「性命論」 「擴充論」의 내용을 종합하면 알 수 있다. 마찬가지로 目-世會-相侮-怒性-矜心-經綸과 脾-交遇-侮己-怒情-侈心-威儀와의 관계, 鼻-人倫-相助-喜性-伐心-行檢과 肝-黨與-助己-喜情-懶心-材幹과의 관계, 口-地方-相保-樂性-夸心-度量과 腎-居處-保己-樂情-竊心-方略과의 관계 또한 위와 같이 설명될 수 있으므로 여기서는 설명을 省略한다.

3) 絶世의 慧覺과 大人의 資業이 각각 太少陰陽人의 취약 부위에 配屬된 이유

지금까지 欺侮助保에 의해 발생한 哀怒喜樂之氣를 매개로 天人性命의 각 항목간의 관계를 설명하였다. 여기까지 天人性命의 항목들을 欺侮助保와 哀怒喜樂으로 묶어서 설명한 이유는 天時와 事務, 籌策, 識見을 하나의 속성(太陽)으로 분류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世會·交遇·經綸·威儀’를 少陽의 속성으로, ‘人倫·黨與·行檢·材幹’을 太陰의 속성으로, ‘地方·

1997. p.435. 『東醫壽世保元』 「性命論」에서 “頷臆臍腹之中… 驕矜伐夸之私心, 卒然欺之則自棄其知而不能博通也.”라 하여 驕矜伐夸의 私心을 경계하여 극복한 知(慧覺)를 博通하다고 하였다.
 58) 전국한과대학 사상의학교실. 四象醫學. 서울. 集文堂. 1997. p.435. 『東醫壽世保元』 「性命論」에서 “頭肩腰臀之下… 奪侈懶竊之慾心, 卒然陷之則自棄其行而不能正行也.”라 하여 奪侈懶竊의 慾心을 경계하여 극복한 行(資業)을 正行이라고 표현하였다.
 59) “太陽之耳 察於天時而 哀衆人之相欺也”는 “太陽人의 귀로 天時를 살피서 세상 돌아가는 형세 및 상대방의 형국을 알고 있으나 세상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고 서로 허황된 일을 도모하려고 하는 모습을 볼 때 哀性이 動하게 된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
 60) “少陽之肺, 行於事務而 哀別人之欺己也.”는 “少陽人의 肺가 계획된 일을 힘써 행함에 다른 사람이 나를 배반할 때 (일을 할 때 함께 일하는 사람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거나 하여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때) 哀情이 動하게 된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 달리 생각하면 나는 事務를 행하고 있으나 주위 사람들은 居處의 개념으로 안주하고 있는 상황으로 볼 수도 있다.

居處·度量·方略'을 少陰의 속성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밝히고자 한 것이었다. 그렇다면 앞으로 '慧覺과 資業'과 '絶世之慧覺과 大人之資業'이 어떻게 틀리고 또 體質別 配屬이 왜 體質別 속성과 틀리게 配屬되는지에 대하여 論할 것이다.

(1) 驕心を 극복한 籌策과 擅(奪)心を 극복한 識見
 ㉔ 絶世의 籌策이 太陰人에게 배속되는 이유
 『東醫壽世保元』 「性命論」의 내용을 東武가 직접 註釋을 달았다고 전해지는 『東武遺稿』의 내용 중 '領屬津海 耳之根本, 而耳屬肺. 則太陰人肺小 故耳無聽力. 卓然自有嗅思之才 籌策也.'⁶¹⁾라는 구절이 있는데 여기에서 領부위에 籌策이 형성되지만 왜 太陰人의 籌策을 絶世의 籌策으로 언급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이 설명에서 의문이 들게 하는 점은 耳, 肺, 太陰人肺小, 耳無聽力의 조건만 가지고도 위와 같은 논리를 구성할 수 있는데도 굳이 津海에 대한 언급이 들어갔는가라는 것이다. 津海에 대한 설명이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이유는 耳聽天時하여 哀性이 형성되는 기전과는 다르게 籌策을 이룰 수 있도록 行其知하는 기전은 津海의 淸氣가 耳를 통하여 나오면서 神을 형성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⁶²⁾ 즉, 天性으로 부여받은 性情의 활동과는 틀리게 후천적으로 공급받는 水穀之氣를 이용하여 性命(道德)의 中節을 노력으로 이루어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津膏油液⁶³⁾의 기운을 근간으로 慧覺을 형성

하는 것이다. 太陽人이 察天機(耳聽天時)하면서 哀性이 遠散해지게 되고 太陽人의 廣博한 天時의 聽力으로 津海의 淸氣를 提出함으로써 上焦를 充滿시키고 神을 이루면서 額에 籌策이 쌓이게 된다. 그러면 당연히 籌策은 太陽人의 전유물이 될 것이다. 그러나 東武는 太陰人의 驕心이 없는 籌策이야말로 絶世의 籌策이라 하였다.⁶⁴⁾ 이 籌策은 太陽人의 聽學之才로 이루어진 籌策과 달리 卓然한 嗅思之才로 이루어진 籌策인 것이다.

그렇다면 卓然한 嗅思之才의 籌策은 어떤 것인가를 살펴봐야 하나 그 전에 慧覺은 무엇이고 어떤 과정을 통해 형성되는 것인가를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慧覺이란 『東醫壽世保元』 「性命論」에서 '나의 본성을 바탕으로 이루어낸 것'⁶⁵⁾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고자 하면서 타인에게 본보기가 되고 가르침이 될 만한 것'⁶⁶⁾을 慧覺이라 하였다. 반면에 資業은 '내가 사명을 이룸에 있어'⁶⁷⁾ 자신을 돌아보고 檢束하면서(廉⁶⁸⁾己) 업적을 이루어 나가는 것'⁶⁹⁾을 資業

四海의 津膏油液에서 耳目鼻口의 聽視嗅味之力을 통해 神氣血精이 提出되고 이렇게 提出된 神氣血精이 다시 頭腦, 背脊, 腰脊, 膀胱을 거쳐 後四海인 臟膜血精으로 공급된다.

64) 전국한의과대학 사상의학교실. 四象醫學. 서울. 集文堂. 1997. p.440. 『東醫壽世保元』 「擴充論」에서 “太陰之領宜戒驕心, 太陰之領, 若無驕心, 絶世之籌策, 必在此也.”라 하였다.

65) 전국한의과대학 사상의학교실. 四象醫學. 서울. 集文堂. 1997. p.435. 『東醫壽世保元』 「性命論」에서 “天生萬民性以慧覺… 慧覺者, 德之所由生也.”라 하였다.

66) 전국한의과대학 사상의학교실. 四象醫學. 서울. 集文堂. 1997. p.435. 『東醫壽世保元』 「性命論」에서 “欲其兼人而有教也.”라고 하였다.

67) 전국한의과대학 사상의학교실. 四象醫學. 서울. 集文堂. 1997. p.435. 『東醫壽世保元』 「性命論」에서 “天生萬民命以資業… 資業者, 道之所由生也.”라 하였다.

68) 民衆書林編輯局. 漢韓大字典. 경기도. 民衆書林. 2007. p.688. '廉'이란 '청렴하다', '검소하다', '날카롭다', '값이 싸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여기서는 '살펴보거나 檢査하다'는 의미로 쓰여졌다고 해석한 것이다. 廣과 兼이 모여서 형성된 글자로 '兼'은 '겸하다'의 뜻으로 직각으로 만나는 방, 모서리의 직선, 두면의 모서리를 겹하고 있는 직선, 모퉁이의 뜻을 나타낸다. 이 능선이 단정한데서 청렴하다는 뜻을 나타내고, 또 이익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 값이 싸다의 뜻 등을 나타낸다.

69) 전국한의과대학 사상의학교실. 四象醫學. 서울. 集文堂. 1997. p.435. 『東醫壽世保元』 「性命論」에서 “欲其廉己而有功也.”라고 하였다.

61) 송일병외. 사상체질과임상편람 『東武遺稿海東』. 서울. 경희한의대사상체질과. 2007. p.12.

62) 전국한의과대학 사상의학교실. 四象醫學. 서울. 集文堂. 1997. p.441. 『東醫壽世保元』 「臟腑論」에서 “津海之淸氣, 出于耳而爲神, 入于頭腦而爲臟海, 臟海者, 神之所舍也. 臟海之臟汁, 淸者, 內歸于肺, 濁滓, 外歸于皮毛, 故胃脘, 與舌, 耳, 頭腦, 皮毛, 皆肺之黨也.”라 하였다.

63) 水穀之氣로 津膏油液이 형성되는 과정에 대해 먼저 津海가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살펴보면 水穀이 胃에 停畜된 후 蒸氣되어 그 중 熱氣의 淸淸한 부분이 胃脘으로 上升되어 溫氣를 형성하게 된다. 이 溫氣가 胃脘에서 다시 津으로 變化되어 舌下로 들어가 津海가 되는 것이다. 여기까지가 津海를 형성하는 과정이고 그 다음에 廣博한 天時의 聽力으로 津海의 淸氣를 귀로 이끌어내어(提出) 上焦에 充滿시킨 뒤 神을 형성하게 되고 이 神은 頭腦에 공급되어 臟가 되고 쌓여서 臟海를 형성하게 된다. 胃脘, 胃, 小腸, 大腸의 四腑에서 水穀之氣가 津膏油液의 前四海를 형성하는 과정과 前

前四海	聽視嗅味		慧覺	生	後四海	學問思辨	資業	充	前四海	
	耳	遠聽	私心				慾心			
津(意)		耳	遠聽	籌策	生	神	臟(神)	肺	正學	識見
	近聽		驕意	耗	偏學			奪利	燼	
膏(慮)	目	大視	經綸	生	氣	膜(靈)	脾	直問	威儀	充
		小視	矜慮	耗			倚問	自尊	燼	
油(操)	鼻	廣嗅	行檢	生	血	血(魂)	肝	中思	材幹	充
		狹嗅	伐操	耗			過思	自卑	燼	
液(志)	口	深味	度量	生	精	精(魄)	腎	和辨	方略	充
		淺味	夸志	耗			不及辨	竊物	燼	

표 3. 聽視嗅味에 의한 神氣血精의 生耗와 學問思辨에 의한 津膏油液의 充燼

이라 하였다. 즉, 慧覺은 性を 바탕으로 存其心養其性하여 이루어내는 知이지만 그것을 이루어내는 방법은 兼人하고 有教하여야 하기 때문에 接人의 과정을 통해 성취될 수가 있으며, 資業은 命을 바탕으로 修其身立其命하여 이루어내는 行이지만 그것을 이루어내는 방법은 廉己하고 有功하여야 하기 때문에 安身의 과정을 통해 성취될 수가 있는 것이다.⁷⁰⁾ 그래서 東武가 언급한 絶世의 籌策이 되기 위해서는 存其心養其性의 切磋琢磨하는 부단한 노력을 통해 얻어진 籌策이라야 남과 더불어 함께할 수 있어 비로소 남을 가르치고⁷¹⁾ 사회를 좋하게 바꾸어나갈 수 있는 慧覺으로서의 籌策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서 잠시 津膏油液의 前四海에서 慧覺과 邪心이

도출되는 것에 대해 『東醫壽世保元』 「臟腑論」을 근간으로 부연설명을 하면 津膏油液의 前四海에 저장된 意慮操志가 耳目鼻口의 聽視嗅味之力의 여하에 따라 籌策, 經綸, 行檢, 度量의 慧覺으로 발휘되느냐 아니면 驕矜伐夸의 私心에 빠지느냐가 결정되어 神氣血精의 生成과 消耗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 그리고 臟膜血精의 後四海에 저장된 神靈魂魄이 肺脾肝腎의 學問思辨의 노력 여하에 따라 識見, 威儀, 材幹, 方略의 資業을 형성하느냐 아니면 奪侈懶竊의 慾心에 빠지게 되느냐가 결정되어 津膏油液을 다시 補充시킬 수도 있고 消燼시킬 수도 있는 것이다. 이를 간략히 도표로 만들어 보면 위 표 3.과 같다.

도표 3에서 津膏油液이 藏하고 있는 意慮操志를 耳目鼻口의 聽視嗅味之力으로 提出해 내는 과정에서 深遠廣大하게 聽視嗅味之力을 발휘한다면 前四海가 위치한 頤臆臍腹에 각각 籌策, 經綸, 行檢, 度量의 慧覺이 쌓이게 될 것이고, 淺近狹小하게 聽視嗅味之力을 발휘한다면 그곳에 驕意, 矜慮, 伐操, 夸志의 私心만이 쌓이게 될 것이다. 만약 存其心養其性⁷²⁾하여

70) 慧覺을 接人의 과정에서 存其心養其性하고, 資業을 安身의 과정에서 修其身立其命하면서 性命을 이루어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 '性情의 安身과 接人, 性命의 慧覺과 資業에서의 상호 관계' 항에서 상술한다.

71) 전국한의과대학 사상의학교실, 四象醫學. 서울, 集文堂. 1997. p.435. 『東醫壽世保元』 「性命論」에서 “慧覺, 欲其兼人而有教也.”라 하였다.

私心を 극복하고 慧覺을 잘 키워나간다면 고르게 神氣血精을 생성시켜 後四海인 臟膜血精을 충만하게 할 것이나 私心에 의해 무너져 切磋琢磨⁷³⁾하지 않고 스스로 知를 버린다면⁷⁴⁾ 驕矜伐夸의 私心으로 인해 神氣血精이 소모되어 臟膜血精의 後四海가 부족해지고 조화를 잃게 될 것이다.

또 臟膜血精이 藏하고 있는 神靈魂魄을 肺脾肝腎이 學問思辨을 통해 吸得해 내는 과정에서 正直中和하게 學問思辨을 해 낸다면 後四海가 위치한 頭肩腰腎에 각각 識見, 威儀, 材幹, 方略의 資業이 쌓이게 될 것이고, 偏倚過不及하게 學問思辨을 한다면 그곳에 奪利, 自尊(侈), 自卑(懶), 竊物의 慾心만이 쌓이게 될 것이다. 만약 修其身立其命⁷⁵⁾하여 慾心을 극복하고 資業을 잘 키워나간다면 고르게 津膏油液을 원활하게 공급하여 前四海인 津膏油液을 충만하게 할 것이나 慾心에 빠져서 慇懃赫喧⁷⁶⁾하지 않고 스스로 행

을 버린다면⁷⁷⁾ 奪侈懶竊의 慾心으로 인해 津膏油液이 消爍되어 前四海가 부족해지고 조화를 잃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어떤 체질에서 絶世의 慧覺에 해당되는 籌策이 형성될 것인가? 耳無聽力한 太陰人이 天時를 遠聽하지 못하기 때문에 마땅히 太陰之額에는 遠散한 衰性의 결과물로 형성되는 籌策이 모자를 것이며, 그 대신에 이 부분에서는 驕心이 쉽게 형성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太陰人은 아무리 어리석다할지라도 그 本性이 卓然⁷⁸⁾하기 때문에 자신의 개인적인 욕심을 절제하고 노력하기만 한다면 그렇게 쌓아올린 지식과 재능으로 주위사람들을 피어서 널리 가르칠 수 있는 능력⁷⁹⁾이 있게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耳無聽力한 太陰人이라 하더라도 太陰之耳가 近聽하여 太陰之額에 驕意가 생기는 것을 경계하고 자신의 不及한 性氣를 극복하는 방법으로 몸소 두루 知를 얻고자 노력한다면⁸⁰⁾ 太陰人이라 할지라도 太陰之耳가 遠聽할 수 있을 것이며, 또 太陰之額에 籌策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형성된 籌策은 타 체질에서 얻을 수 있는 籌策과는 다르게 남을 교화할 수 있고 남들이 자발적으로 본받고 따라올 수 있게 하는 대단한 籌策일 것이며 이것이 太陰人의 卓然한 嗅思之才에 의한 籌策일 것이다. 그래서 東武는 太陽人 본연의 性氣의 特長으로 형성된 籌策이 아닌 太陰人의 存其心養其性하여 비로소 얻

72) 전국한의과대학 사상의학교실. 四象醫學. 서울. 集文堂. 1997. p.435. 『東醫壽世保元』 「性命論」에서 “人之額臆臍腹之中, 誣世之心, 每每隱伏也. 存其心養其性然後, 人皆可以爲堯舜之知也.”라 하였다.

73) 切磋琢磨: 『大學章句傳三章』(金赫濟 校閱. 大學中庸. 서울. 明文堂. 1995. p.43.)에서 인용된 것으로 이를 직역하면 ‘자른 듯, 치낸 듯, 쪼은 듯, 갈아낸 듯하다’라는 뜻이다. 이 문장을 주희는 ‘止於至善’한 군자가 어떤 것인가를 설명한 부분이라고 했으나 이것은 단계를 밟아 성숙해가는 모습을 설명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 더 옳을 것이다. 切磋琢磨를 사물을 다듬는 공정과 비교하면 돌을 조각할 때 먼저 큰 덩어리에서 필요한 부분만큼 잘라내고 잘려진 부분 중 필요 없는 부분을 기준에 맞게 쳐내는 작업이 切이고, 그 큰 덩어리에서 솟은 부분 등을 일정한 기준에 맞게 갈아내는 행위가 磋이다. 어느 정도 기준에 맞는 형상이 갖추어지면 보다 세밀하게 쪼아서 음각과 양각을 다듬는 작업이 琢이며, 마침내 완성단계에서 보다 곱게 연마하는 것이 磨이다. 切磋의 과정까지는 이미 갖추어진 기준에 따라 돌을 다듬는 행위라고 하면 琢磨의 과정은 드러내고 싶은 형상을 스스로 드러내게 다듬어주는 행위가 되는 것이다.

74) 전국한의과대학 사상의학교실. 四象醫學. 서울. 集文堂. 1997. p.435. 『東醫壽世保元』 「性命論」에서 “額臆臍腹之中, 自有不息之知, 如切如磋而驕矜伐夸之私心, 卒然敗之則自棄其知而不能博通也.”라 하였다.

75) 전국한의과대학 사상의학교실. 四象醫學. 서울. 集文堂. 1997. p.435. 『東醫壽世保元』 「性命論」에서 “人之頭肩腰腎之中, 罔民之心, 種種暗藏也. 修其身立其命然後, 人皆可以爲堯舜之行也.”라 하였다.

76) 慇懃赫喧: 『大學章句傳三章』에서 인용된 것으로 쫓은 현악기의 줄을 당겼다가 놓으면 줄이 파르르 울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람의 마음이 소름이 끼칠 정도로 항상 긴장

되어 있음을 표현한 것이다. 慇은 파르르나 울고 있는 줄에 사람이 손을 갖다 대면 멈추는 그 순간의 정적을 말하는 것으로, 아무리 멀리더라도 그 중심은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묘사한 것이다. 赫은 부싯돌을 쳤을 때 불꽃이 탁 튀어나오는 반짝거림을 말하는 것으로 자신이 본성을 깨우쳐 번쩍 빛을 발하는 것을 말하며, 喧은 사물을 밝게 비추는 모습을 나타낸다.

77) 전국한의과대학 사상의학교실. 四象醫學. 서울. 集文堂. 1997. p.435. 『東醫壽世保元』 「性命論」에서 “頭肩腰腎之下, 自有不息之行, 赫兮喧兮而奪侈懶竊之慾心, 卒然陷之則自棄其行而不能正行也.”라 하였다.

78) 民衆書林編輯局. 漢韓大字典. 경기도. 民衆書林. 2007. p.340 卓然(=卓卓然): 높이 뛰어난 모양.

79) 전국한의과대학 사상의학교실. 四象醫學. 서울. 集文堂. 1997. p.440. 『東醫壽世保元』 「擴充論」에서 “太陰人雖至愚, 其性卓卓然, 猶教誘也.”라 하였다.

80) 전국한의과대학 사상의학교실. 四象醫學. 서울. 集文堂. 1997. p.439. 『東醫壽世保元』 「擴充論」에서 “太陰之靜量可而靜也. 自反其知而不周, 不能靜也.”라 하였다.

게 된 籌策을 絕世의 籌策이라 표현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東武는 「擴充論」을 끝맺으면서 太陰之韻에는 마땅히 驕心을 경계해야한다고 하였으며, 만약에 太陰之韻에 驕心이 전혀 없는 상태에 까지 이룬다면 이때에서야 비로소 絕世의 籌策이 형성될 수 있다고 단서를 단 것이다.⁸¹⁾

위에서 接人의 과정을 통해 慧覺을 이루고, 安身의 과정을 통해 資業을 이룬다고 하였는데 여기에서 ‘性氣와 情氣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安身과 接人’이 ‘性命으로 이루어지는 慧覺과 資業’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에 대해 잠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i. 性情의 安身과 接人, 性命의 慧覺과 資業에서의 상호 관계

安身은 事物의 접촉 없이 자신의 心身에서 혼자 이루어내는 自己獨得之性이기 때문에 본래 타고난 性과 情 가운데 性에서 발전되어 나온 개념이라 볼 수 있으며, 接人은 타인이나 사회적인 교류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발생하는 與人相接之性이므로 情에서 발전되어 나온 개념이라 볼 수 있다. 그런데 자신의 命을 알고 行(知命)하는 자만이 安身을 제대로 할 수 있고, 성실하게 자신의 본성을 다(盡誠)하는 자만이 接人을 균형 있게 잘 이루어낼 수 있다고 한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의 註구절⁸²⁾을 참고한다면, 安身의 喜怒哀樂之未發之性⁸³⁾인 性을 中에 맞추기 위해서는 性命의 命을 따라야하며, 接人의 喜怒哀樂之已

發之性⁸⁴⁾인 情을 節에 맞추기 위해서는 性命의 性을 쫓아야한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喜怒哀樂의 未發과 已發을 나누는 기준은 기존 性理學에서 理氣를 기준으로 나누는 것과는 다르게 外界(事物)와의 접촉 및 자율에 의한 선택과정의 유무를 기준으로 구분되었다고 봐야 옳을 것이다. 즉, 性情중 性을 中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면서 자기 본연의 性을 지키고 밝게 드러내기 위해서는 命을 따라 存其心養其性⁸⁵⁾하여야 하고, 情을 節에 맞추고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性을 쫓아 修其身立其命⁸⁶⁾하여야 하는 것이다.

여기서 性命과 性情, 安身과 接人, 慧覺(知)과 資業(行)의 관계를 道德을 매개로 『東醫壽世保元』 「性命論」과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 『格致藁』의 원문을 토대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性命論」에서는 ‘하늘이 만백성을 낳는데 性으로 慧覺을 삼는다. …慧覺이란 德이 생겨나는 바이다. 하늘이 만백성을 낳는데 命으로 資業을 삼는다. …資業이란 道가 생겨나는 바이다.’⁸⁷⁾라 하였고, ‘사람의 頤臆臍腹에는 세상을 속이고 자하는 마음이 매번 잠복되어 있다. 마음의 중심을 지키고 본연의 善한 마음을 기른 延후에라야 사람들은 모두 堯舜의 지혜를 이룰 수가 있다. 사람의 頭肩腰臀에는 세상 사람을 속이고자하는 마음이 그때그때 감추어져 있다. 몸의 행실을 올바르게 닦고 자신의 사명을 바로 세운 延후에라야 모든 사람이 堯舜의 행실과 업

81) 전국한의과대학 사상의학교실. 四象醫學. 서울. 集文堂. 1997. p.440. 『東醫壽世保元』 「擴充論」에서 “太陰之韻宜戒驕心. 太陰之韻, 若無驕心, 絕世之籌策, 必在此也.”라 하였다.

82) 朴性植.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 서울. 集文堂. 2003. p.75.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 「原人 第二統」에서 安身에서의 欲心을 설명한 원문 다음에 “有是點而有是慝, 衆人皆然, 惟知命者, 不然.”이라 註를 첨부하였으며, 다음 接人에서의 放心을 설명한 원문 다음에 “有是能而有是惑, 衆人皆然, 有盡誠者, 不然.”이라고 註를 첨부하였다.

83) 李濟馬 原著, 朴大植 譯註. 格致藁. 경기도. 청계출판사. 2002. p.206. ; 전국한의과대학 사상의학교실. 四象醫學. 서울. 集文堂. 1997. p.438. 『格致藁』 「反誠箴」에서 “戒愼恐懼者, 不來往不立臨之時, 自己獨得之性而有中不中也.”라 하였으며, 『東醫壽世保元』 「四端論」에서 “喜怒哀樂之未發, 謂之中… 喜怒哀樂未發而恒戒者, 此非漸近於中者乎.”라 하였다.

84) 李濟馬 原著, 朴大植 譯註. 格致藁. 경기도. 청계출판사. 2002. p.206. ; 전국한의과대학 사상의학교실. 四象醫學. 서울. 集文堂. 1997. p.438. 『格致藁』 「反誠箴」에서 “喜怒哀樂者, 往來臨立之間, 與人相接之性 而有節不節也.”라 하였으며, 『東醫壽世保元』 「四端論」에서 “喜怒哀樂之已發 謂之和… 喜怒哀樂已發而自反者, 此非漸近於節者乎.”라 하였다.

85) 전국한의과대학 사상의학교실. 四象醫學. 서울. 集文堂. 1997. p.435. 『東醫壽世保元』 「性命論」에서 “人之頤臆臍腹之中, 誣世之心, 每每隱伏也, 存其心, 養其性, 然後, 人皆可以爲堯舜之知也.”라 하였다.

86) 전국한의과대학 사상의학교실. 四象醫學. 서울. 集文堂. 1997. p.435. 『東醫壽世保元』 「性命論」에서 “人之頭肩腰臀之下, 罔民之心, 種種暗蔽也, 修其身, 立其命, 然後, 人皆可以爲堯舜之行也.”라 하였다.

87) 전국한의과대학 사상의학교실. 四象醫學. 서울. 集文堂. 1997. p.435. 『東醫壽世保元』 「性命論」에서 “天生萬民, 性以慧覺… 慧覺者, 德之所由生也. 天生萬民, 命以資業… 資業者, 道之所由生也.”라 하였다.

적을 이룰 수가 있다.’⁸⁸⁾라고 하여 存在를 설명하는 德의 내용에 性과 慧覺을 거론하고 心과 領臆臍腹, 知를 연결하여 설명하였으며, 인간이 살아가면서 마땅히 하여야하는 當爲를 설명하는 道의 내용에 命과 資業을 거론하고 身과 頭肩腰臀, 行을 연결하여 설명하였다. 마찬가지로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 「原人 第一統」에서도 ‘세상(天下)이 돌아가고 이루어지는 것은 그 이치가 넓어 두루 알기 어려우나 그 이치의 善함을 밝게 알 수 있는 것은 德이고 性인 것이다. 한 사람이 행실하는 것은 욕심에 따라 교착되고 의혹되기 쉬운데 그 욕심을 바로잡고 성실히 行할 수 있는 것은 道이고 命인 것이다.’⁸⁹⁾라 하여 德의 내용으로 天과 性을, 道의 내용으로 人과 命을 설명하였다.

그러나 과도한 性情에 의해 臟氣가 손상됨을 설명하고 哀怒喜樂을 警戒하라는 내용을 담은 「原人 第三統」에서는 ‘喜怒哀樂이 아직 發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준비하는 것은 어찌 恭敬의 道가 아니겠는가?喜怒哀樂이 이미 發한 상태에서 억지로 꾸미지 않는 것은 어찌 誠實의 德이 아니겠는가?喜怒哀樂이 發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준비하는 것을 中을 지켰다라고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喜怒哀樂이 發한 상태에서 억지로 꾸미지 않는 것을 節에 맞지 않다고 할 수 있겠는가?’⁹⁰⁾라 하여 誠實之德으로써 喜怒哀樂之已發을 다스리고 情을 節度에 맞추어야 한

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恭敬之道으로써 喜怒哀樂之未發을 잘 간직하면서 기르고 性을 中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格致藁』에서 ‘天命이 인간에게 부여한 性을 天命之性이라고 하고, 人性으로써 天命을 따르는 것을 率性之道라 한다.喜怒哀樂이 未發한 상태는 깨닫고자 자기 마음속의 변화에 조심하여 잡념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이러한 상태를 오래도록 지키는 것을 修道之教라 한다.’⁹¹⁾라고 한 것을 보면 喜怒哀樂之未發之性인 ‘性’을 제대로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道’를 따라야하는데 그 방법론으로는 正命之道⁹²⁾에 있으며 이는 天命을 行하는 頭肩腰臀의 行을 빌어서 奪修懶竊의 怠心을 경계하고 命(資業)을 이루어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喜怒哀樂之已發之性인 ‘情’을 제대로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德’을 쫓아야하는데 그 방법론으로는 至性之德에 있으며 이는 性命의 性을 지극히 알 수 있게 하는 領臆臍腹의 知를 빌어서 驕矜伐夸의 邪心을 경계하고 性(慧覺)을 이루어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喜怒哀樂之未發之性(性)은 存心養性하되 天命을 그대로 따르는 修其身立其命하는 방법론을 쫓아 怠心을 극복하는 道를 따라야하며, 喜怒哀樂之已發之性(情)은 修身立命하되 天性을 그대로 보존하고 밝히는 存其心養其性하는 방법론을 쫓아 邪心을 극복하는 德을 따라야 內외의 道⁹³⁾를 모두 겸비할 수 있는 것이다. 이를 알기 쉽게 도표화 시키면 다음 표4와 같다.

88) 전국한의과대학 사상의학교실. 四象醫學. 서울. 集文堂. 1997. p.435. 『東醫壽世保元』 「性命論」에서 “人之領臆臍腹之中, 誣世之心, 每每隱伏也. 存其心養其性然後, 人皆可以爲堯舜之知也. 人之頭肩腰臀之中, 罔民之心, 種種暗藏也. 修其身立其命然後, 人皆可以爲堯舜之行也.”라 하였다.

89) 朴性植.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 서울. 集文堂. 2003. p.65. 『東醫壽世保元草藁』 「原人 第一統」에서 “天下所成者, 其理擴而難周, 明知其理之善者, 德也, 性也. 一人之所作者, 其欲膠着而易惑, 誠行其欲之正者, 道也, 命也.”라 하였다.

90) 朴性植.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 서울. 集文堂. 2003. pp.96-100. 『東醫壽世保元草藁』 「原人 第三統」에서 “太陽人, 未怒前, 預備暴怒, 則怒易安也… 太陽人少陽人, 深警哀怒之過度, 而祇可少引喜樂之不及, 而不必大做, 喜樂之事, 而強振之也. 若強振喜樂, 則喜樂不出於其情, 而欲心動而哀怒益偏也… 蓋警之而少引, 則過之者退, 適於中, 而不及者, 亦暗進守中矣. 若強振之而大做, 則非徒無益而又害之. 是故, 恭敬也已矣, 誠信也已矣. 喜怒哀樂未發, 而預備者, 非恭敬之道乎? 喜怒哀樂既發, 而不強振者, 非誠實之德乎? 未發而預備者, 非中之謂乎? 既發而不強振者, 非節之謂乎?”라 하였다.

91) 李濟馬 原著, 朴大植 譯註. 格致藁. 경기도. 청계출판사. 2002. p.205. 『格致藁』 「反誠箴」에서 “以天命而授人性者, 天命之性也. 以人性而順天命者, 率性之道也. 喜怒哀樂之未發, 即致知慎獨也… 致知慎獨不息而久, 則修道之教也.”라 하였다.

92) 전국한의과대학 사상의학교실. 四象醫學. 서울. 集文堂. 1997. p.435. 『東醫壽世保元』 「性命論」에서 “惡人之惡而我必不行惡者, 正命之道也.”라 하였으며, 또 “天生萬民命以資業, 萬民之生也, 有資業則生, 無資業則死. 資業者 道之所由生也.”라 하였고, “人之頭肩腰臀之中, 罔民之心, 種種暗藏也. 修其身立其命然後, 人皆可以爲堯舜之行也.”라 하였다.

93) 李濟馬 原著, 朴大植 譯註. 格致藁. 경기도. 청계출판사. 2002. p.206. 『格致藁』 「反誠箴」에서 “自己獨得之性盡於內, 則與人相接之性盡於外也. 性之德也 合內外之道也. 時措之宜也.”라 하였으며, 이는 『中庸』 「25章」의 “性之德也, 合內外之道也. 故時措之宜也.”라 한 구절에서 따온 것이다.

性命(體)			性情(用)			
性	心	至性之德 存其心養其性	X	恭敬之道 喜怒哀樂之未發而預備者	好善	性
	知				安身	
命	身	正命之道 修其身立其命		誠實之德 喜怒哀樂之既發而不強摶者	惡惡	情
	行				接人	

표 4. 性命과 性情的 道德에 의한 연결

위 표4에서 性命에서의 ‘性’은 하늘(天)로부터 稟賦 받은 내 안에 存在하는 德으로서 그 存在를 지키고 밝히기만 하면 至性之德을 이루어 낼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을 用的 측면에서 그 存在를 바로 지켜내는 것은 四臟의 仁義禮智인 四臟之氣를 節度에 맞게 擴充시켜나가는 방법일 것이다. 그래서 好善이 無雙한 至性之德⁹⁴⁾을 혼탁한 氣의 가림 없이 세상에 밝게 드러내어 남과 함께 하면서 가르침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⁹⁵⁾ 喜怒哀樂이 已發한 가운데 과도하게 喜怒哀樂의 감정을 조장하지 않도록 接人에서 항상 경계하여야 할 것이다. 이것을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에서 誠實之德으로 표현하였다.

그리고 性命에서의 ‘命’은 내가 생활 속에서 몸소 行함으로써 실천하여야 하는 當爲性으로 지속적으로 命을 자각하고 몸은 닦으면서 실천한다면 正命之道를 이루어 낼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을 用的 측면에서 그 當爲性을 실천하는 것은 내 안에 존재하는 天命으로써 稟賦 받은 心の 理致와 仁義禮智를 지키고 밝혀내는 과정이 될 것이다. 그래서 惡惡이 無雙한 正命之道⁹⁶⁾를 한편으로 기울어지거나 치우침 없이 자신의 모습을 바르게 지켜나가면서 功을 이루기 위해서

는⁹⁷⁾ 喜怒哀樂이 未發한 가운데 그 喜怒哀樂이 증신을 잡고 中에서 벗어나지 않게 安身에서 스스로 반성하고 돌이켜보는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다. 이것을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에서 恭敬之道로 표현하였다.

ii. 太陽人의 性氣의 長短點에 따른 籌策과 行檢
여기에서 논쟁의 요소가 될 수 있는 부분인 太陽人이 체질적으로 籌策을 잘 형성하는 반면 太陰人은 체질적으로 籌策이 부족하다고 本 論文에서 해석한 부분에 대해서는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 「原人 第二統」에서 언급된 原文을 참고하면 東武의 체질에 따른 知行의 長短點에 대한 기본적인 사고를 엿볼 수 있다. ‘太陽人은 항상 배우고자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그 性氣가 앞으로 나아가는 데에만 민첩하고 뒤로 물러서려고 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날로 聞見은 넓어지고 지혜가 치밀해진다. 그래서 太陽人은 賢者이다.’⁹⁸⁾라고 하였고, 또 ‘太陽人의 性氣가 만약 진취적으로 앞으로 나아가면서 또 물러설 때에는 안정한다면 聞見만 넓어지는 것이 아니고 威儀 또한 점차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은 有餘한 肺氣만 억누르는 것이 아니고 不足한 肝氣를 보충해주는 것이다.’⁹⁹⁾라 하였다.¹⁰⁰⁾ 여기서 聞見과 智慧는 籌策을

94) 전국한의과대학 사상의학교실. 四象醫學. 서울. 集文堂. 1997. p.435. 『東醫壽世保元』 「性命論」에서 “人之耳目鼻口, 好善無雙也.”라 하였으며, “好人之善, 而我亦知善者, 至性之德也.”라 하였다.

95) 전국한의과대학 사상의학교실. 四象醫學. 서울. 集文堂. 1997. p.435. 『東醫壽世保元』 「性命論」에서 “慧覺欲其兼人而有教也.”라 하였다.

96) 전국한의과대학 사상의학교실. 四象醫學. 서울. 集文堂. 1997. p.435. 『東醫壽世保元』 「性命論」에서 “人之肺脾肝腎 惡惡無雙也.”라 하였으며, “惡人之惡, 而我必不行惡者, 正命之道也.”라 하였다.

97) 전국한의과대학 사상의학교실. 四象醫學. 서울. 集文堂. 1997. p.435. 『東醫壽世保元』 「性命論」에서 “資業欲其廉己而有功也.”라 하였다.

98) 朴性植.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 서울. 集文堂. 2003. p.71.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 「原人 第二統」에서 ‘太陽之學者, 因其自然之性氣, 而敏於進而不苟於退. 故聞見日博而智慧日密也, 賢者也.’라 하였다.

99) 朴性植.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 서울. 集文堂. 2003.

이루는 과정과 결과에 대한 표현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여기서 표현된 威儀는 『東醫壽世保元』에서 사용된 資業에서의 威儀와는 다르게 行檢을 이루는 과정에 대한 표현으로 쓰여졌다고 볼 수 있다.¹⁰¹⁾ 그에 대한 근거는 바로 다음에 설명한다. 즉, 위 내용은 『東醫壽世保元』에서 사용되는 단어로 표현한다면 ‘太陽人이 자기 성향대로 나아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물러서서 안정하기도 한다면 籌策만 이루는 것이 아니라 行檢을 함께 이룰 수 있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東醫壽世保元』 「擴充論」에서도 太少陰陽人의 性氣에 대해 설명한 부분에서 太陽人의 性氣는 항상 나아가려고만 하고 뒤로 물러서려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또 太陽人이 제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자신의 재능과 힘을 굳건하게 하지 않는다면 추진력 있게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고 하였다.¹⁰²⁾ 즉, 자신의 특장을 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노력으로 보완시켜야 타고난 특장을 유감없이 발

휘할 수 있다라고 한 것이다. 여기서 ‘재능과 힘을 굳건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壯材)은 바로 太陽人에게는 鼻之嗅力이 부족한데 鼻之嗅力으로 넓게 냄새 맡고자(廣嗅)¹⁰³⁾하는 노력의 과정을 통해 얻어지는 능력으로 太陽人의 臍에 行檢을 쌓는 과정과 부합되는 것일 것이다.

여기서 잠깐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 「原人 第二統」의 각 體質의 性氣에 대한 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해당 원문¹⁰⁴⁾을 보기 쉽고 이해하기 편하게 표로 만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 「原人 第二統」에서 설명된 체질별 性氣에 따른 慧覺의 형성 기전을 『東醫壽世保元』의 구조에 맞춰 이해해보기 위해서는 그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의 구조는 天人의 二元構造로 되어있는 반면 『東醫壽世保元』의 구조는 天人性命의 四元構造로 되어있다는 것을 유의하여야 한다.¹⁰⁵⁾

四象人	과정	결과	『東醫壽世保元』의 慧覺		性氣의 短點을 보완하여 이룬 慧覺	『東醫壽世保元』의 絶世之慧覺
太陽人	聞見	智慧	籌策	→	威儀	行檢
少陽人	制度	經綸	經綸	→	度量	度量
太陰人	威儀	行檢	行檢	→	智慧	籌策
少陰人	度量	功積	度量	→	經綸	經綸

표 5.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의 性氣 장단점과 『東醫壽世保元』에서의 慧覺과의 관계

p.71.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 「原人 第二統」에서 “太陽之性氣，若進之而又靜之，則非但聞見博也，威儀亦慎也。非但肺氣抑有餘也，肝氣亦補不足也。”라 하였다.

100) 전국한외과대학 사상의학교실. 四象醫學. 서울. 集文堂. 1997. p.439. 『東醫壽世保元』 「擴充論」에서는 “太陽之性氣 恒欲進而不欲退…，太陽之進，量可而進也。自反其材而不壯，不能進也.”라 하였다.

101) 朴性植.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 서울. 集文堂. 2003. p.71.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 「原人 第二統」에서 “太陰之思者，因其自然之性氣，而安於靜而不妄於動。故威儀日慎，而行檢日成也，知者也.”라 하였다.

102) 전국한외과대학 사상의학교실. 四象醫學. 서울. 集文堂. 1997. p.439. 『東醫壽世保元』 「擴充論」에서 “太陽之性氣，恒欲進而不欲退.”， “太陽之進，量可而進也。自反其材而不壯，不能進也.”라 하였다.

103) 전국한외과대학 사상의학교실. 四象醫學. 서울. 集文堂. 1997. p.441. 『東醫壽世保元』 「臟腑論」에서 “耳必遠聽，目必大視，鼻必廣嗅，口必深味.”라 하였다.

104) 朴性植.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 서울. 集文堂. 2003. pp.71-73.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 「原人 第二統」에서 “是故太陽之學者，因其自然之性氣，而敏於進而不苟於退。故聞見日博，而智慧日密也，賢者也。太陰之思者，因其自然之性氣，而安於靜而不妄於動。故威儀日慎，而行檢日成也，知者也。少陽之問者，因其自然之性氣，而堪於學而不怠於措。故制度日審，而經綸日足也，能者也。少陰之辨者，因其自然之性氣，而重於處而不輕於出。故度量日明，而功績日至也，良者也.”와 “太陽之性氣，若進之而又靜之，則非但聞見博也，威儀亦慎也。非但肺氣抑有餘也，肝氣亦補不足也。太陰之性氣，若靜之而又進之，則非但行檢成也，知慧亦密也。非但肝氣抑有餘也，肺氣亦補不足也。少陽之性氣，若學

위 도표에서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이 慧覺과 資業의 구분이 없다는 것에 유의하여 그 내용을 살펴보면 ‘太陽之肺가 善學함으로써 聞見이 넓어지고 智慧가 치밀해짐은 당연한 이치이나 만약 太陽人이 자신의 性氣의 短點을 보완하기위해 靜하고자 노력한다면 威儀또한 함께 이를 수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여기서 聞見과 智慧는 籌策에 대한 표현이고 威儀는 다른 항목에서 聞見으로 智慧를 쌓고, 制度로 經綸을 쌓고, 度量으로 功積을 쌓는 것과 같이 威儀로 行檢을 쌓는 인과관계의 병렬식 구조로 해석한다면 『東醫壽世保元』에서 資業으로 언급된 威儀로 해석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필자는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에서 天人의 二元構造가 『東醫壽世保元』에서 天人性命의 四元構造로 확충 보완되면서 威儀의 의미가 명확해짐으로써 배속이 바뀐 것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에서 언급된 威儀를 行檢으로 재해석하고 智慧를 籌策으로 해석한다면 위 도표와 같이 太陽人은 마땅히 籌策이 넓고 치밀하나 만약 자신의 性氣¹⁰⁶⁾의 短點을 보완한다면 그 반대

之而又處之, 則非但制度審也, 度量亦明也. 非但脾氣抑有餘也, 腎氣亦補不足也. 少陰之性氣, 若處之而又學之, 則非但功績至也, 經綸亦足也. 非但腎氣抑有餘也, 脾氣亦補不足也.”라 하였다.

105) 朴性植.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 서울. 集文堂. 2003. p.65. 朴性植의 『東醫壽世保元 四象草本卷』에 의하면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을 『東醫壽世保元』의 天人性命 四象構造와 비교하면 차이점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는데, 첫째, 事務, 交遇, 黨與, 居處는 衆同에서 各立으로 바뀌고, 天의 개념이 人으로 바뀌게 되며, 天의 자리에는 天時, 世會, 人倫, 地方이 추가된다. 둘째, 籌策, 謀猷, 材幹, 便宜는 籌策, 經綸, 行檢, 度量으로 바뀌고, 人의 개념이 性으로 바뀌었다. 셋째, 識見, 威儀, 材幹, 方略의 命 은 草本卷에서 없는 개념으로 『東醫壽世保元』에 새로 추가되었다. 넷째, 材幹은 草本卷에서는 人에 속해 있다가 『東醫壽世保元』에서는 命에 속해졌다. 다섯째, 草本卷 당시까지는 天人構造만 있었으나 『東醫壽世保元』에서 性命의 개념이 만들어지면서 天은 人으로, 人은 性으로 바뀌고, 天和 命은 새로 추가되었다.

106) 전국한의과대학 사상의학교실. 四象醫學. 서울. 集文堂. 1997. p.439. ; 朴性植. 東醫壽世保元 四象草本卷. 서울. 集文堂. 2003. pp.72-73. 『東醫壽世保元』 「擴充論」에서 각 체질의 性氣를 설명한 문장을 보면 “太陽之性氣 恒欲進而不欲退.”라 하고 또 “太陽之進, 量可而進也. 自反其材而不壯, 不能進也.”라 하여 자신의 장점을 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단점을 어느 정도 극복해야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에서는 性氣와 情

성질인 行檢까지도 이를 수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이 東武가 이야기하고 있는 絶世의 慧覺인 것이다.

iii. 太陰人이 接人에서 不能人事의 영역에서 慧覺을 이루는 과정

그리고 위에서 接人의 과정을 통해 存心養性하여 慧覺을 이룬다고 하였는데 太陰人이 어떻게 接人의 과정으로 籌策을 이루는지를 보면 다음과 같다. 『東醫壽世保元』 「擴充論」에서 太陰人은 樂情으로 居處를 열심히 하고 또 노력하는 만큼 능동하게 할 수 있지만 事務에 있어서는 잘하지도 못하거나, 제대로 하려고 노력도 하지 않기 때문에 事務에서 자신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된다고 하였으며¹⁰⁷⁾,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 「原人 第二統」에서도 太陰人은 接人에 있어 居處에서는 能하나 事務에서는 能하지 못하고 太陰人이 자신 본연의 마음(天命之性)을 잃고 放心하게 되면 居處에서는 교만해지나 事務에서는 속이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것은 存其心하지 못하여 마음을 놓게 되면 太陰人이 잘해보고자 노력하는 居處에서 자신은 거만해지고 남을 업신여기는 侮心이란 邪心에 빠지게 되는데 事務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기 때문에 오만하게 남을 멸시하는 邪心이 개입될 기회조차 없는 것이라 볼 수 있다.¹⁰⁸⁾ 이를 『東醫壽世保

氣의 구분 없이 性氣만 언급되고 있으며, 性氣의 활동이 바로 慧覺(知) 및 資業(行)의 성취로 바로 이어지고 있다. 『東醫壽世保元 四象草本卷』에서 朴性植은 聞見, 威儀, 制度, 度量을 頭肩腰臀에서 이루어지는 資業으로 보았고, 智慧, 行檢, 經綸, 功積을 額臆臍腹에서 이루어지는 慧覺으로 보고 있으나 草本卷의 구조는 아직 四元構造가 성립되지 않은 단계에서 二元構造를 중심으로 개념설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연결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고 보나 東武의 생각이 발전하는 과정과 認識이 확충되는 과정상에서 『東醫壽世保元』의 의미를 해석하는데 도움을 받는 측면에서 본다면 크게 어긋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東醫壽世保元』에서는 性氣와 情氣의 활동에 의해 慧覺(知)과 資業(行)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설명하지 않고 단지 邪心과 慾心의 극복만이 慧覺과 資業의 성취의 관건이 되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다.

107) 전국한의과대학 사상의학교실. 四象醫學. 서울. 集文堂. 1997. p.439. 『東醫壽世保元』 「擴充論」에서 “太陰之樂能恒定於居處, 故居處保也. 太陰之哀 不能敏達於事務, 故事務不保也.”라 하였다.

108) 朴性植.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 서울. 集文堂. 2003.

接人	能人事		不能人事		能人事에서 邪心 극복*		不能人事에서 邪心 극복	
	太陽人	謹於 驕於*	交遇	輕於 不驕於*	黨與	\	始有見於其人之有害*	終不至暴傷於怒 不敢輕易而驕人*
交人有害之怒心* 交遇生疎人慮患之怒心 放縱之心*		親熟黨與人所陷 擇交之心 不廣 放縱之心		若無伐心				
少陽人	重於 傲於*	事務	不勤於 不侮於*	居處	\	始有見於其事之難與*	終不至暴傷於哀 不敢輕易而傲人*	
	大與事之哀心* 出外與事務之哀心 自私之心*		內做居處人所陷 重外而 輕內 偏私之心					若無夸心
太陰人	重於 侮於*	居處	不勤於 不傲於*	事務	\	始有見於其居之不好*	終不至暴傷於樂 不敢輕易而侮人*	
	好家居之樂心* 內做居處之樂心 物慾之心*		出外與事務人所誣 重內而 輕外 物欲之心					若無驕心
少陰人	謹於 譎於*	黨與	輕於 不驕於*	交遇	\	始有見於其人之不利*	終不至暴傷於喜 不敢輕易而譎人*	
	黨人有利之喜心* 黨與親熟人擇交之喜心 安逸之心*		生疎交遇人所誣 慮患之心 不周 偷逸之心					若無矜心

표 6. 接人에서 能人事의 부위에서 情의 暴發을 警戒하고, 不能人事의 부위에서 邪心을 警戒하여 絶世의 慧覺을 이루는 관계(『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의 내용은 ‘*’표시를 함)

元四象草本卷』의 내용과 『東醫壽世保元』「擴充論」의 내용을 종합하여 표로 만들면 표 6과 같다.

위 표 6은 喜怒哀樂之已發之性을 자신의 본성에 대해 돌이켜보고 반성하여 存其心養其性함으로써 慧覺을 이루는 과정을 설명한 것이다. 그런데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과 『東醫壽世保元』에서의 시각차이가 있는데,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에서는 能한 人事의 영역에서 放心할 경우 驕傲侮譎의 邪心이 개입되어 그에 해당하는 情氣가 暴發한다고 하였으나 『東醫壽世保元』에서는 能한 人事에서의 哀怒喜樂之情은 秉彜之敬心이므로 莫非至善¹⁰⁹⁾이라 하여 邪心

의 개입 여지를 부정하고 있다. 단지 能한 人事에 해당하는 情氣를 엉뚱하게 不能한 人事에 무리하게 적용하고자함으로써 情暴發이 일어난다고 하였다. 그리고 不能한 人事의 영역에서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에서는 不能하기 때문에 驕傲侮譎의 邪心이 없다고 단정 짓고 있으나, 『東醫壽世保元』에서는 자신의 情氣의 長點만 따르고 短點을 전혀 보완하지 않는다면 放縱, 偷逸, 便私, 物慾의 心慾에 빠진다고 하면서 不能한 人事를 소홀히 함으로써 偏急한 哀怒喜樂之情으로 情氣의 暴發이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天人性命의 四元構造가 확립되지 않은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에서는 性氣만 언급되고 情氣에 대한 언급은 없으며, 知行, 즉 慧覺과 資業의 구분이 없이 단지 安身과 接人의 개념만이 性氣와 情氣의 초기개념으로 나뉘어진 상태라고 볼 수 있다. 즉, 결론적으로 위

pp.79-80.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原人 第二統」에서 “太陰之接人，能於居處而不能於事務。”라 하고 이어서 “是故，太陰之放心，侮於居處而不傲於事務。”라 하였다.
109) 전국한의과대학 사상의학교실. 四象醫學. 서울. 集文堂. 1997. p.440. 『東醫壽世保元』「擴充論」에서 “太陽人，謹於交遇故，恒有交遇生疎人慮患之怒心。此心，出於秉彜之敬心也，莫非至善… 少陰人，謹於黨與故，恒有黨與親熟人擇交之喜心。此心，出於秉彜之敬心也，莫非至善… 少陽人，重

於事務故，恒有出外與事務之哀心。此心，出於秉彜之敬心也，莫非至善… 太陰人，重於居處故，恒有主內做居處之樂心。此心，出於秉彜之敬心也，莫非至善…”이라 하였다.

표에서는 性氣의 短點 극복으로 絶世의 慧覺이 이루어진다는 설명과 더불어 현실적으로 接人에서 不能한 人事 분야에서 放縱, 偷逸, 便私, 物慾의 心慾을 제거하는 방법을 따라 邪心을 없앤다면 絶世의 慧覺을 이룰 수 있다는 내용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東醫壽世保元』 「擴充論」에서 ‘太陰人の 領에는 마땅히 驕心을 경계하여야 한다. 만약 太陰人の 領에 驕心이 없다면 絶世의 籌策이 여기에 있을 것이다.’¹¹⁰⁾라 하였다. 太陰人の 聽力이 天時에 廣博하지 못함¹¹¹⁾으로 마땅히 遠聽하여 籌策을 형성하여야 하나 近聽함으로써 驕意가 領에 충만해지기 쉬울 것이다. 이러한 太陰人の 체질적 상황에서 太陰人이 驕心을 警戒하여 太陰人の 領에 그 驕心을 완전히 없애는 경지에까지 이른다면 그 과정에서 형성된 籌策은 보통의 籌策이 아닌 絶世의 籌策일 것이다. 이렇게 체질적 특성과 전혀 상반된 慧覺에서 絶世之慧覺을 도출해 낼 수 있는 이유를 「性命論」에서 그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東醫壽世保元』 「性命論」의 마지막 문단에서 「性命論」의 내용적 핵심을 비유적으로 요약정리하면서 끝을 맺고 있는데 그 내용이 다음과 같다.

‘자신 본연의 심성을 간직하고 본연의 性을 잘 기른다는 것은 자신의 마음을 부단히 따져 밝힌다는 것이다. 마음의 밝고 어두움이 비록 저절로 타고난 것처럼 여겨지나 반드시 자신의 마음을 따져 밝히는 사람의 마음만이 맑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탁할 것이다. 말의 깨우치는 마음이 소보다 민첩한 것은 말의 따져 밝히는 責心이 소보다 약기 때문이다. 매의 기세가 술개보다 날래고 용감한 것은 매의 스스로 재촉하는 기운이 술개보다 맹렬하기 때문이다. 마음의 청탁과 기상의 강약이 소와 말, 술개와 매에서의 이치를 미루어 견주어 보아도 이러한데 하물며 인간

에게 있어서는 어떻겠는가? 혹은 두 배, 다섯 배, 혹은 천 배, 만 배 차이가 날 것인데 어찌 태어나면서 문득 얻은 것으로 우두커니 아무 생각 없이 가만히 앉아서 저절로 그렇게 될 수 있겠는가?’¹¹²⁾라고 역설하였다.

위 「性命論」의 내용의 핵심은 타고난 본성이 아무리 탁월하고 재능이 뛰어나다고 할지라도 그 본성과 재능을 지속적으로 責心, 責氣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고, 타고난 바탕이 비록 보잘 것 없더라도 부단히 責心, 責氣만 한다면 누구나 堯舜의 知行을 이룰 수 있을 것¹¹³⁾이라는 것이다. 즉, 堯舜의 知에 비견할만한 絶世의 慧覺을 이루는데 있어서의 관건은 存其心養其性, 즉 私心을 경계하고 부단히 責其心하는데 있기 때문에 絶世의 籌策은 責其心하면서 부단히 驕心을 극복한 太陰人の 領에 있을 것이다. 만약 太陰人이 責其心하지 않고 마음을 놓고 放心한다면 그 本性이 籌策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太陰人の 領에는 驕心만이 가득하게 될 것이다.

籌策은 太陽人에게 있어 자연스러운 慧覺이나 이 慧覺이 絶世의 慧覺이 되기 위해서는 太陽人の 性氣대로 앞으로 나아가기만(進) 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擴充論」에서 언급한대로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간에 잠시 물러서서 자신의 재능과 힘을 충실하게 기르는 시간을 가져야 내실을 기하면서 일이 순리대로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太陽人이 자신의 性氣대로 주위 상황과 상관없이 일의 추진에만 전력을 다한다면 籌策으로 내놓은 계획은 현실로부터 점점 동떨어져서 실현가능성이 희박해지거나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이 되지 못할 것이다. 일이 진행되는 상황과 관계없이 목표 달성에 집착하

110) 전국한의과대학 사상의학교실. 四象醫學. 서울. 集文堂. 1997. p.440. 『東醫壽世保元』 「擴充論」에서 “太陰之領宜戒驕心. 太陰之領, 若無驕心, 絶世之籌策, 必在此也.”라 하였다.

111) 전국한의과대학 사상의학교실. 四象醫學. 서울. 集文堂. 1997. p.439. 『東醫壽世保元』 「擴充論」에서 “太陰之嗅能廣博於人倫故, 太陰之血, 充足於腰脊而歸肝者, 大也. 太陰之聽, 不能廣博於天時故, 太陰之神, 不充足於頭腦而歸肺者, 小也.”라 하였다.

112) 전국한의과대학 사상의학교실. 四象醫學. 서울. 集文堂. 1997. p.436. 『東醫壽世保元』 「性命論」에서 “存其心者, 責其心也. 心體之明暗, 雖若自然而責之者清, 不責者濁. 馬之心覺點於牛者, 馬之責心, 點於牛也. 鷹之氣勢猛於鴟者, 鷹之責氣, 猛於鴟也. 心體之清濁, 氣宇之強弱, 在於牛馬鴟鷹者, 以理推之而猶然, 況於人乎. 或相倍蓰, 或相千萬者, 豈其生而輒得, 茫然不思, 居然自至而然哉.”라 하였다.

113) 전국한의과대학 사상의학교실. 四象醫學. 서울. 集文堂. 1997. p.435. 『東醫壽世保元』 「性命論」에서 “人之領臆臍腹之中, 誣世之心, 每每隱伏也. 存其心養其性然後, 人皆可以爲堯舜之知也. 人之頭肩腰腎之中, 罔民之心, 種種暗藏也. 修其身立其命然後, 人皆可以爲堯舜之行也.”라 하였다.

여 밀어붙이기만 한다면 처음엔 아무리 이상적인 계획을 세웠다고 할지라도 현실성이 부족해질 것이기 때문에 絶世의 籌策이라 불리지는 못할 것이다. 반면 太陰人은 자신의 자리를 지키면서 항상 많은 정보를 받아들이고 선불리 일을 일으키지 않고 내실을 기하는데 장점이 있으므로 太陰人이 한번 일을 도모하면 그 목표한 바를 달성하는데 현실적으로 보다 유리할 것이다. 만약 太陰人이 열심히 움직이고 배워서 주변 정세를 파악하고 뜻을 세우고 일을 추진한다면 그 계획은 현실화될 수 있는 가능성과 힘이 커질 것이고 그 籌策의 기세는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絶世의 籌策이 될 수 있을 것이다.

㉔ 大人의 識見이 少陰人에게 배속되는 이유

『東醫壽世保元』 「性命論」의 내용을 東武가 직접 註釋을 달았다고 전해지는 『東武遺稿』의 내용 중 「頭之賦海 神之所舍也. 神之爲氣 光明而鑑造化 自有識見. 則此句之論太陽人言 而特學少陰人言者 皆少陰出太陽 而奪其母神故也.」¹¹⁴⁾라는 구절이 있는데 여기에서 頭부위에 識見이 형성되지만 왜 少陰人의 識見을 大人의 識見으로 언급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神이 頭腦를 공급하여 積累된 것이 賦海이며¹¹⁵⁾, 또 神의 光明而鑑造化한 성질이 識見의 성질과 같아 賦海의 神이 충만한 사람이 識見또한 당연히 출중하다는 설명인 것이다. 위에서 설명한대로 賦海가 충실한 체질은 당연히 天時의 聽力이 廣博한 太陽人일 것인데 여기서 오히려 少陰人을 지칭하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 『東武遺稿』에서도 「此句之論太陽人言」이라 하여 마땅히 賦海가 충만한 太陽人이 光明而鑑造化한 神을 頭腦에 잘 보존하기 때문에 「臟腑論」적인 입장에서는 太陽人의 識見을 大人의 識見이라 하여야 하나 「少陰出太陽, 而奪其母神故也.」라고 간략히 설명하면서 大人의 識見은 少陰人에게 있다고 하였다. 이것은 「四端論」적인 哀怒喜樂之氣의

기능적인 운동을 감안한다면 衰氣가 「少陰-腎」부위에서 출발하여 「太陽-肺」부위에 이르기 때문에¹¹⁶⁾ 지속적으로 「修其身 立其命」하는 노력을 통해 賦海인 頭部를 충실히 공급해주기 위해서는 「少陰-腎精」이 충실한 少陰人이 大人의 識見을 이룰 수 있는 신체적 환경을 갖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四腑의 기능으로 水穀을 停畜, 消導, 上下升降을 통해서 津膏油液을 이루어내는 과정과는 다르게 肺脾肝腎의 四臟이 哀怒喜樂之氣를 통해 人事를 行하면서 일어나게 되는 四氣의 升降으로 賦膜血精의 생성변화가 유발되는 것이다. 물론 賦膜血精의 형성은 기초적으로 耳目鼻口의 聽視嗅味之力으로 神氣血精이 만들어져서 頭腦, 背脊, 腰脊, 膀胱에 주입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나 知行의 行的 차원에서는 부단히 「修其身立其命」하여 資業을 이루는 과정이기 때문에 四臟의 哀怒喜樂之氣의 변화가 더 크게 작용할 것이다.

哀怒喜樂之氣가 肺脾肝腎의 四焦에서 衰氣는 下焦腎부위에서 上焦 肺부위로, 怒氣는 中下焦 肝부위에서 中上焦 脾부위로, 喜氣는 中上焦 脾부위에서 中下焦 肝부위로, 樂氣는 上焦 肺부위에서 下焦 腎부위로 운동하는 속성과 太少陰陽의 出生¹¹⁷⁾(太陽生少陰,

116) 본인의 참고 『哀怒喜樂之氣의 運動에 따른 太少陰陽人의 四臟大小 變化에 대한 研究』(趙榮. 慶熙大學校大學院. 2005. pp.35-41.)에서 四臟의 哀怒喜樂之氣가 운동하는 방향성과 위치에 대한 설명을 『東醫壽世保元』 「四端論」 原文을 토대로 상세하게 하였다.

117) 太少陰陽의 出生에 대한 언급은 『東武遺稿』에서 神靈魂魄에 의해 資業이 형성되는 것을 설명하면서 “少陰出太陽, 而奪其母神故也... 太陽生少陽, 而假其子靈魄也... 少陽出太陰, 而憑其母魄故也... 太陽生少陰, 而恃其子魄故也.”라 하였는데 이를 정리하면 太陽은 少陰에 대해 母가 되고 少陰은 太陽에 대해 子가 되며, 太陰은 少陽에 대해 母가 되고 少陽은 太陰에 대해 子가 된다. 이러한 母子 관계를 충족하려면 ‘出’을 ‘出於’로 해석할 수도 있으나 그렇게 하면 少陰出於太陽이나 太陽生少陰의 내용이 전혀 다를 것이 없어진다. 그리고 哀怒喜樂之氣의 기운의 방향성까지 고려한다면 위 내용을 좀 더 입체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太陽이나 太陰이란 질료적 바탕 안에 기운이 응축하거나 상승하여 少陰이나 少陽이 형성된다고 가정하면 太陽·太陰과 少陰·少陽의 形氣的 구분 경계를 넘나드는 과정을 出生으로 표현한다면 어설프게나마 위 내용이 설명될 수 있는 모델을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즉, 生은 孕胎하는 것으로 出은 出產하는 것으로 비유될 수 있을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한 연구는 차후에 보다 심도 있게 다루어져야 할 부분으로 사료된다.

114) 송일병의, 사상체질과임상편람 『東武遺稿海東』, 서울. 경희한의대사상체질과. 2007. p.12.

115) 전국한의과대학 사상의학교실. 四象醫學. 서울. 集文堂. 1997. p.441. 『東醫壽世保元』 「臟腑論」에서 “耳以廣博天時之聽力, 提出津海之清氣, 充滿於上焦爲神而注之頭腦爲賦, 積累爲賦海.”라 하였다.

少陰出太陽, 太陰生少陽, 少陽出太陰)에 대한 내용을 도식화하면 아래 표 7과 같다.

그렇다면 少陰인이 천부적으로 잘 형성할 수 있는 資業과 부단한 노력의 성과로 이룰 수 있는 資業은 識見, 威儀, 材幹, 方略 중 어느 것이며, 또 두 資業이 갖는 의미가 어떻게 틀린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少陰인은 체질적으로 腎大하기 때문에 腎의 충실한 辨의 기능으로 精海의 清汁을 吸得하여 腎을 滋養한 뒤 液을 凝聚시킨다. 앞 표 3 '聽視嗅味에 의한 神氣血精의 生耗와 學問思辨에 의한 津膏油液의 充燻'에서 제시되었듯이 腎이 善辨하면 精海가 藏하고 있는 魄을 方略으로 드러낼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少陰인은 廣博한 地方의 味力으로 液海에서 清氣를 提出하여 精을 膀胱에 공급하여 精海를 충실히 형성하기 때문에 마땅히 精海가 藏하는 魄이 많아 체질적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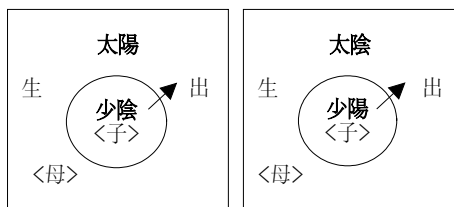
方略을 잘 이룰 것이다.

또, 少陰인은 情氣의 특성이 恒欲爲雌¹¹⁸⁾하여 喜情이 促急하므로 黨與에서 雅立한 肝의 喜力으로 血海의 清汁을 吸得하여 肝臟을 滋養시키고 肝臟의 기운을 鼓動시켜 油를 凝聚시킨다. 앞 표 3 '聽視嗅味에 의한 神氣血精의 生耗와 學問思辨에 의한 津膏油液의 充燻'에서 제시되었듯이 肝이 善思하면 血海가 藏하고 있는 魂을 材幹으로 잘 드러낼 수 있으므로 材幹또한 어느 정도 형성될 수 있는 바탕이 있다.

그리고 少陰인은 恒不欲爲雄¹¹⁹⁾하기 때문에 交人有害之怒心¹²⁰⁾, 즉 怒情이 부족하여 交遇를 가볍게 여기고 交遇를 行하는데 노력하지 않는다. 거기에 체질적으로 少陰之視가 世會에 廣博하지 못하여 脾가 小하므로 마땅히 膜海에서 이루어지는 威儀는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東醫壽世保元』 「擴充論」

太少陰陽의 出生 四焦	少陰出太陽	太陰生少陽	少陽出太陰	太陽生少陰	後四海(背部)
上焦 太陽	↑				頭 (頭腦) 髓海
中上焦 少陽		↑	↓		肩 (背脊) 膜海
中下焦 太陰			↓		腰 (腰脊) 血海
下焦 少陰				↓	腎 (膀胱) 精海
四氣	哀氣	怒氣	喜氣	樂氣	
母子관계	奪其母神	假其子靈	憑其母魂	恃其子魄	
四象人 資業	少陰人 識見	太陰人 威儀	少陽人 材幹	太陽人 方略	

표 7. 太少陰陽의 出生과 哀怒喜樂之氣의 四焦에서의 運動 변화



118) 전국한의과대학 사상의학교실. 四象醫學. 서울. 集文堂. 1997. p.439. 『東醫壽世保元』 「擴充論」에서 “少陰之情氣, 恒欲爲雌而不欲爲雄.”이라 하였다.
 119) 전국한의과대학 사상의학교실. 四象醫學. 서울. 集文堂. 1997. p.439. 『東醫壽世保元』 「擴充論」에서 “少陰之情氣, 恒欲爲雌而不欲爲雄.”이라 하였다.
 120) 朴性植.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 서울. 集文堂. 2003. p.81.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 「原人 第二統」에서 “太

에서 ‘少陰人이 비록 암컷처럼 행세하기를 좋아하나 마땅히 수컷처럼 행세하기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少陰人의 마음에 내재되어있는 욕심인 偷逸之心이 과해져서 怒情으로 대하여야 할 交遇에서 喜情을 부리기 때문에 脾를 더욱 상하게 만든다.’¹²¹⁾고 하였다. 즉, 少陰人의 怒情은 少陰人의 情氣의 長點인 喜情을 偷逸之心으로 빠지지 않도록 견제하고 보완하는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위 ‘太少陰陽의 出生과 哀怒喜樂之氣의 四焦에서의 운동변화’ 표에서 보듯이 喜情과 怒情은 방향성이 정 반대로 이루어진 기운으로 喜情의 過不及을 조절하는 기능으로 怒情의 쓰임이 제격일 것이다. 그리고 喜情이 促急한 情氣의 특성을 가진 少陰人으로서의 喜情과 운동방향성이 정반대인 怒情을 전적으로 활용하면서 修身行世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이므로 少陰人의 威儀는 없어서는 안 될 필수불가결한 것일 것이나 그렇다고 억지로 길러낼 수 있는 資業 또한 되질 못한다. 여기에서 ‘不欲爲雄’에 대한 의미를 怒情의 不足으로 해석한 이유는 『東醫壽世保元』과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의 조문 중 ‘少陰之情氣 恒欲爲雌而不欲爲雄’, ‘太陽之人 雖好爲雄 亦或宜雌, 若全好爲雄 則放縱之心 必過也.’와 ‘太陽之心 放縱之過也, 交人有害之怒心 最重也.’의 조문을 함께 참고하여 해석하면 太陽人이 全好爲雄하고자할 때 과도하게 형성되는 放縱之心은 交人有害之怒心으로 연결된다. 즉, 爲雄하고자하는 것은 怒情의 발로로 볼 수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少陰人의 哀情과 識見에 대한 부분으로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 「原人 第二統」에서 ‘少陰人이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기 주관대로 편안한 마음으로 행할 때에는 事務에 약고 居處에서는 약지 않다.’¹²²⁾라고 단정 짓고¹²³⁾, 이어서 ‘少陰人이 편안

한 마음 상태가 아닌 欲心에 의해 마음이 가리워져 있을 때에는 居處를 속이지는 않으나 事務에서는 인색하게 된다.’¹²⁴⁾라고 하였다. 이 두 문장의 내용을 보면 少陰人에게 있어 居處는 자신 본연의 性氣와 같이 마음 가는 데로 편안하고 노력 없이 이루어지는 부분이나, 事務를 행할 때는 항상 마음을 쓰게 되고 노력하게 되는 성향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만약 마음에 욕심이 끼게 된 경우에는 무리하게 事務를 인위적으로 내 방향으로 이끌고자하는 의도 때문에 事務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인색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 문장에 註가 달려있는데 ‘약할 때가 있는가 하면 또 사특할 때가 있는 것이 모든 중인들이 그러한데 오직 命을 알고 따르는 자만이 그렇지 않고 한결같다.’¹²⁵⁾라고 하였다. 이 말은 少陰人이 安身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命을 알고 잘 따라야 하는데 그러려면 반드시 事務에서 責心, 責氣하여야 한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또, 다음 條文

『東醫壽世保元』 「性命論」에서 性命을 올바르게 따르고 기르는 責心, 責氣의 방법론을 설명한 문장에서 “馬之心覺, 點於牛者, 馬之責心, 點於牛也.”라고 “말의 心覺이 소의 心覺보다 민첩하고 영특한 것은 말의 마음을 각성시키는 것이 소의 責心보다 민첩하기 때문이다.”라고 한 것을 보면 ‘點’이란 ‘지속적으로 일깨워서 민첩하고 능하게 한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123) 朴性植,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 서울. 集文堂. 2003. p.75. 朴性植의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 「原人 第二統」의 해설을 보면 ‘點, 不點을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약다’와 ‘약지 않다’의 뜻이다. 보통 ‘약다’는 말은 사람이 진실되지 못하고 무엇인가 자기 이익을 위하여 재빨리 행동하는 것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點을 부정적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 그러나 이곳의 ‘點’은 부정적 의미보다는 ‘영리하다’, ‘갈한다’, ‘민첩하다’는 긍정적 의미를 내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 다음 문장의 接人에서 能, 不能을 쓰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여기 安身에서 點, 不點은 다음 接人에서 能, 不能과 같은 목적으로 사용된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點은 能과 비슷한 말로 받아들여야 한다. 東武가 사용하는 ‘點’에는 사람이 둔하지 않고 뭔가 민첩한 점이 있다는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용례는 『東醫壽世保元』 「性命論」의 “存其心者, 責其心也. 心體之明暗, 雖若自然而責之者清, 不責者濁. 馬之心覺, 點於牛者, 馬之責心, 點於牛也.”에서도 찾을 수 있다.”라고 하였다.

124) 朴性植,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 서울. 集文堂. 2003. p.75.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 「原人 第二統」에서 “是故, 少陰之欲心, 奮於事務而不許於居處.”라 하였다.

125) 朴性植,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 서울. 集文堂. 2003. p.75.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 「原人 第二統」에서 “有是點而有是惡, 衆人皆然, 惟知命者不然.”라 하였다.

陽之心, 放縱之過也. 交人有害之怒心, 最重也.”라 하였다. ‘爲雄’의 의미를 ‘交人有害之怒心’으로 연결한 까닭은 다음 문장에서 자세히 설명하였다.

121) 전국한의과대학 사상의학교실, 四象醫學. 서울. 集文堂. 1997. p.439. 『東醫壽世保元』 「擴充論」에서 “少陰之人, 雖好爲雌, 亦或宜雄, 若全好爲雌則偷逸之心, 必過也.”라 하였다.

122) 朴性植,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 서울. 集文堂. 2003. p.74.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 「原人 第二統」에서 “少陰之安身, 點於事務而不點於居處.”라 하였다.

에서 ‘少陰人의 마음은 때면 하고자하는 바를 얻고자하여 좋아하는 것을 즐기고자하는 마음이 항상 가슴속에 놓여 있다. 그런데 少陰人이 事務에서 인색하지만 않는다면 무리하게 좋아하는 것을 즐기고자하는 好樂之心이 가슴속에 놓여있을 곳이 없어진다.’¹²⁶⁾ 라고 하여 少陰人은 事務에서 責心, 責氣하는 點의 마음을 항상 유지한다면 欲心에 의해 벌어지는 好樂之心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한 것이다.

위 註¹²⁷⁾에서의 내용처럼 修其身立其命하는 과정이 바로 安身에서 責心, 責氣하는 것이며 그 과정(修其身立其命)을 통해 이루어내는 결과가 資業일 것이다. 少陰人은 事務에서 責心, 責氣하므로 그 노력의 산물인 資業은 바로 識見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얻어진 識見은 少陰人 자신의 性氣의 결점을 安身에서 命을 따라 극복함으로써 얻어진 資業이기 때문에 大人의 資業이라고 칭하였다. 그리고 少陰人의 方略과 材幹은 少陰人이 본래 타고난 性氣와 情氣의 특성 및 臟局의 편차에 따라 자연스럽게 獲得한 長點인 반면 識見은 자신의 情氣의 취약점을 극복하고 命을 따르면서 欲心을 제거함으로써 이루어진 資業이기 때문에 少陰人의 識見을 大人의 識見이라 한 것이다. 즉, 太陽人의 識見처럼 원리적인 이치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현실과 동떨어진 識見이 아닌 少陰人의 大人之識見은 현실적으로 적용가능하고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원리 원칙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무시하거나 억지로 끼워 맞추려고자 하는 奪心이란 愈心이 없는 탁월한 智慧로 순하게 많은 사람들을 어를 수 있는 깊이가 있는 識見일 것이다.

그런데 資業은 命으로 이루어지고 四臟의 情의 활동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인데 왜 接人이 아닌 安身의 과정에서 資業이 길러지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어떤

방법을 따라 存其心養其性하여 慧覺을 이루고, 또 생활 속에서 무엇을 중심으로 修其身立其命하여 資業을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은 앞에서 慧覺을 설명하면서 ‘性情의 安身과 接人, 性命의 慧覺과 資業에서의 상호 관계’ 항에서 상술하였다.

위와 같은 방식으로 矜心을 극복한 絶世之經綸이 少陰人에게 배속되고 侈心을 극복한 大人之威儀가 太陰人에게 배속되며, 伐心을 극복한 絶世之行檢이 太陽人에게 배속되고 懶心을 극복한 大人之材幹이 少陽人에게 배속되며, 夸心을 극복한 絶世之度量이 少陽人에게 배속되고 竊心을 극복한 大人之方略이 太陽人에게 배속되는 이유를 똑 같이 설명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상술은 생략한다.

이것으로 絶世의 慧覺과 大人의 資業이 각각 太少陰陽人의 취약부위에 配屬된 이유를 알아보았다. 체질이나 知愚賢不肖의 여하에 관계없이 누구나 天機를 받아들이고 人事를 몸소 行하면서 삶을 영위하고 있다. 그러나 삶의 방식과 모습, 그리고 세상에서 자신의 가치를 펼치고 자신의 존재성을 드러내는 양식과 정도는 천차만별인 것이다. 이러한 차이는 나면서부터 타고난 재능의 차이가 아니라 살아가면서 자신의 性命을 어떻게 이루어내느냐가 관건이다. 東武는 노력 없이 나면서부터 타고난 재능은 그것이 아무리 뛰어나다할지라도 배우고 노력하여 익힌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남과 더불어 함께 할 수도 없고 여러 사람에게 가르칠 수도 없어 絶世의 慧覺이나 大人의 資業이라 칭하지 않았다. 그러나 자신의 단점을 극복하면서 배우고 물어서 다시 생각하고 판단하는 과정을 통해 얻어진 노력의 성과물은 주위의 본보기가 되고 누구나 귀감을 삼아 좇아할 수 있을만한 것이기 때문에 太陽人의 行檢과 方略, 少陽人의 度量과 材幹, 太陰人의 壽策과 威儀, 少陰人의 經綸과 識見을 絶世의 慧覺이라 하고 大人의 資業이라 칭송하였다. 『東武遺稿』에서 慧覺과 資業의 太少陰陽人 配屬에 대한 설명에 이어서 사람의 知行은 천부적으로 타고난 것이 아니고 또 자신의 장단점을 그대로 지니고 살 것이 아니라 자신의 단점은 남의 장점을 본받아서 배우고, 나의 장점은 살려서 부족한 남을 가르쳐야 서로 돕고 일을 이루고 함께 공을 세우면서 올바른 길로 나아가갈

126) 朴性植.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 서울. 集文堂. 2003. pp.77-78.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 「原人 第二統」에서 “少陰之心, 每欲得所欲, 而好樂之心, 恒放於胸中也.”라 하고 “少陰之人, 若不奮於事務則好樂之心, 無所恒放於胸中也.”라 하였다.

127) 朴性植.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 서울. 集文堂. 2003. p.75.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 「原人 第二統」에서 “有是點而有是愿, 衆人皆然, 惟知命者不然.”이라 하였다.

수 있다고 설파하고 있다.¹²⁸⁾ 여기서 東武의 知行論의 핵심을 엿볼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세상을 다른 사람과 함께 더불어 살면서 자신의 단점은 극복하고 자신의 장점은 살려서 서로 돕고 가르치고 배우는 것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부단한 노력으로 자신의 단점을 극복한 慧覺과 資業에 絶世之慧覺과 大人之資業을 배속한 것을 보면 東武의 知行論이 체질 결정론적인 입장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마땅히 걸어야 할 性命이 무엇인지를 밝히고 자신의 체질적 결점을 극복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에 큰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III. 考察

1. 東武의 性情에 대한 概念

東武의 性情에 대한 인식은 心을 太極으로 삼고 여기에서 體가 되는 부분을 性으로 삼고 用이 되는 부분을 情으로 삼아 이런 體用의 관계 속에서 형성된 개념으로서의 未發한 體가 性이 되며, 已發한 用이 情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性情을 지닌 인간이 天機와 人事의 구조 틀 속에서 존재할 때 性命(知行)으로 그 존재가치를 드러내는데 그것이 바로 慧覺과 資業인 것이다. 慧覺과 資業은 頤臆臍腹 및 頭肩腰臀으로 대별되는 인간의 몸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존재하게 되는데 이것이 東武의 독특한 天人관계 속에서의 실천적 知行論이며 이는 인간의 몸이 단순히 육체적이고 감각적 기능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고도의 정신활동이나 도덕적 기능까지 갖추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性은 人體 前面部에 위치한 耳目鼻口가 聽視嗅味之力으로 天機를 살피면서(察) 善한 것을 순응하면서 받아들이는 과정(好善)이며, 이것은 외부세계의 환경과 정보에 내가 적응하고 사회적으로 조화를 이루는 과정이다. 외부로부터 善한 기운을 받아들여 몸에 정상적인 도움을 주는 과정을 順動之氣라 표

현한다. 情은 人體 後面部에 위치한 肺脾肝腎이 敏達於事務, 勇統於交遇, 雅立於黨與, 恒定於居處하는 능력으로 人事에 임(行)할 때 나에게 부적합한 것(惡)을 거부하면서 순리에 맞도록 人事를 행하는 과정(惡惡)이며, 이것은 내가 적극적으로 외부세계에 변화를 꾀하고 사회적인 역할을 능동적으로 하는 과정이다. 외부의 惡한 기운을 능동적으로 선별하고 거부하면서 외부세계에 자신의 역할을 해 나갈 때 작용하는 기운을 逆動之氣라 표현하면서 이때에는 肺脾肝腎의 四臟으로부터 기운이 發用되어 形氣의 변화를 일으키면서 외부세계에 역동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 四臟에서부터 逆動之氣로 기운이 외부로 작용해나가는 과정을 情氣라 한다.

東武는 性과 情의 역할에 있어 媒介가 되는 기운을 哀怒喜樂之氣로 명명하여 기운의 운동 방향성에 따라 直升之氣는 哀氣, 橫升之氣는 怒氣, 放降之氣는 喜氣, 陷降之氣는 樂氣로 설명하였다.

性情의 기운은 인체의 內部와 外部를 出納¹²⁹⁾의 기능으로 연결하면서 서로 相成·相資하여 전환이 된다고 하였다. 즉 陽性的의 哀怒之氣와 陰性的의 喜樂之氣가 陽氣는 陽氣끼리, 陰氣는 陰氣끼리 서로 表裏의 陰陽관계를 형성하면서 陽性的의 哀怒之氣와 陰性的의 喜樂之氣가 상호 表裏極變하게 되어 相成·相資하게 된다.¹³⁰⁾

2. 心身 腹背의 四象構造

인체 前面部는 心과 性이 지배하는 부위로 耳目鼻口와 頤臆臍腹이 있다. 耳目鼻口의 聽視嗅味之力으로 天時, 世會, 人倫, 地方의 天機를 받아들여 性이 감응하여 哀怒喜樂之性이 動하게 된다. 또, 水穀之氣를 胃脘, 胃, 小腸, 大腸이 받아들여 溫熱涼寒之氣로 轉化시켜 頤(舌下), 臆(臍間兩乳), 臍, 腹(前陰毛際之

129) 여기에서의 出納은 水穀之氣의 出納이 아닌 외부세계의 자극과 정보 중 내게 맞는 善한 것을 받아들이고 축적하는 性의 기능과 四臟의 기운을 발휘하면서 외부세계에 역동적으로 내게 맞지 않는 惡한 것을 거부하는 행위를 해 나가는 情의 기능을 일컫는다.

130) 權健赫. 黃帝內經 靈樞 27篇 周痺篇에 대한 考察. 계간 사상의학. 2004. 가을호. pp.76-77. “哀怒之氣와 喜樂之氣의 表裏 구분은 肺脾肝腎의 引縮收放운동을 근거로 한 것으로...”

128) 李濟馬 原著, 權健赫 譯. 國譯東醫壽世保元東武遺稿. 서울. 圖書出版盤龍. 1999. p.17. 『東武遺稿』에서 “識見必無奪也, 威儀必無侈也, 材幹必無懶也, 方略必無竊也. 然則以我之短, 學彼之長. 以我之長, 教彼之短. 同時助成, 功歸正. 故曰, 無奪, 無侈, 無懶, 無竊之謂也.”라 하였다.

內)에 津膏油液을 만들고, 이 津膏油液에서 耳目鼻口의 聽視嗅味之力을 원동력으로 삼아 清氣를 提出하면서 神氣血精을 생성해 낸다. 이때 聽視嗅味之力의 여하에 따라 神氣血精이 생성되기도 하고 소모되기도 하는데, 存其心養其性하면서 본래 타고난 性氣의 偏差를 극복하면서 籌策, 經綸, 行檢, 度量의 慧覺을 이루기 위해서는 耳目鼻口의 쓰임을 深遠廣大하게 하여 지속적으로 神氣血精을 생성시키는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存心養性하지 못하고 耳目鼻口의 쓰임이 淺近狹小하게 되면 驕意, 矜慮, 伐操, 夸志의 邪心에 빠져 神氣血精을 생성시키지 못하고 소모만 하게 되는 것이다. 즉, 津膏油液에 저장된 意慮操志가 存其心養其性의 과정을 통해 耳目鼻口의 聽視嗅味之力이 어떻게 발휘되느냐에 따라 慧覺으로 발휘될 수도 있으며 또 邪心으로 드러날 수도 있는 것이다.

인체 後面部는 身이 行爲(行其行)를 하는 부위로 肺脾肝腎과 頭肩腰臀이 있다. 肺脾肝腎의 敏達, 勇統, 雅立, 恒定하는 능력으로 事務, 交遇, 黨與, 居處의 人事를 行하면서 哀怒喜樂之情이 動하게 된다. 또 水穀之氣에서 형성된 津膏油液의 前四海에서 耳目鼻口의 聽視嗅味之力으로 清氣인 神氣血精을 提出하고 다시 頭(頭腦), 肩(背脊), 腰(腰脊), 臀(膀胱)으로 주입시켜 髓膜血精의 後四海를 이루게 된다. 肺脾肝腎의 敏達, 勇統, 雅立, 恒定하는 능력으로 髓膜血精의 後四海에서 清汁을 吸得해 낼 때 神靈魂魄을 發用시키게 된다. 修其身立其命하면서 자신의 情氣의 단점을 극복하면서 識見, 威儀, 材幹, 方略의 資業을 이루기 위해서는 肺脾肝腎의 쓰임이 正直中和하여 지속적으로 神靈魂魄을 형성시키는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修身立命하지 못하고 肺脾肝腎의 쓰임이 偏倚過不及하게 되면 奪(奪利), 侈(自尊), 懶(自卑), 竊(竊物)의 怠行에 빠져 神靈魂魄을 形成시키지 못하고 손상만 하게 될 것이다. 즉, 髓膜血精에 저장된 神靈魂魄이 修其身立其命의 과정을 통해 肺脾肝腎의 學問思辨의 노력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資業으로 발휘될 수도 있으며, 또 怠行으로 드러날 수도 있는 것이다.

3. 哀怒喜樂之氣와 欺侮助保, 天機, 人事, 慧覺·邪心, 資業·怠行과의 관계

太少陰陽인이 각각 人事를 行할 때 자신이 不及한 偏小之臟의 人事에서 자신이 能한 人事의 情氣가 暴發하는 이유는 자신이 能하지 못한 人事에 處하여 자신의 부족함을 감추고자 자신이 能한 人事의 情氣를 끌어다가 무리하게 적용시킴으로써 人事와 情氣간의 부조화와 충돌로 能한 人事의 情氣가 暴發하게 되고 그에 따라 그 情氣의 기운을 공급하는 偏小之臟이 손상을 받게 된다. 즉, 太陽人의 경우 黨與에 雅立하지 못하여 자신이 能한 交遇의 情氣인 太陽之脾의 怒情으로 黨與를 다스리고자하기 쉽기 때문에 黨與에 雅立하기는커녕 黨與人으로부터 업신여김을 당하여 怒情이 暴發하게 된다.

哀와 欺를 중심으로 驕心과 籌策, 奪心과 識見에 대한 관계를 보면 相欺에 의해 발생한 哀性이 心之過에 의해 偏急된 결과가 驕心이며, 籌策은 心慾을 경계하면서 자신의 哀性이 偏急되지 않도록 中을 지키는 存其心養其性의 과정을 통해 얻어지는 慧覺에 해당된다. 奪(擅)心은 欺己로 인해 발생한 哀情을 원만하게 잘 풀어나가지 못한 身不及에 대한 결과이고, 識見은 자신의 哀情을 돌이켜보고 반성하여 偏急(暴發)되지 않도록 節에 맞추는 修其身立其命하는 과정을 통해 얻어지는 資業에 해당된다.

侮에 의한 怒氣의 性情으로 이루어진 矜心과 經綸, 侈心과 威儀에 대한 관계, 助에 의한 喜氣의 性情으로 이루어진 伐心과 行檢, 懶心과 材幹에 대한 관계, 保에 의한 樂氣의 性情으로 이루어진 夸心과 度量, 竊心과 方略에 대한 관계 또한 위와 마찬가지로이다.

4. 絕世之慧覺과 大人之資業의 太少陰陽人 配屬

津膏油液의 前四海에 저장된 意慮操志가 耳目鼻口의 聽視嗅味之力의 여하에 따라 籌策, 經綸, 行檢, 度量의 慧覺으로 발휘될 수도 있고, 驕矜伐夸의 私心に 빠질 수도 있다. 耳目鼻口의 聽視嗅味之力이 深遠廣大하면 神氣血精이 生成되면서 津膏油液에 저장되어

있던 意慮操志가 慧覺으로 발휘될 수 있으며, 聽視嗅味之力이 淺近狹小하면 神氣血精이 消耗되면서 津膏油液의 意慮操志가 驕意, 矜慮, 伐操, 夸志의 私心으로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賦膜血精의 後四海에 저장된 神靈魂魄이 肺脾肝腎의 學問思辨의 노력 여하에 따라 識見, 威儀, 材幹, 方略의 資業이 형성될 수도 있고, 奪侈懶竊의 慾心에 빠질 수도 있다. 肺脾肝腎이 鍊達(敏達, 勇統, 雅立, 恒定)하게 人事를 행하면서 學問思辨하는데 正直中和하다면 津膏油液을 補充시키면서 賦膜血精에 저장되어 있던 神靈魂魄이 資業으로 형성될 것이며, 肺脾肝腎이 學問思辨하는데 偏倚過不及하다면 津膏油液을 消燦시키면서 神靈魂魄이 奪侈懶竊의 慾心으로 드러나게 될 것이다. 耳目鼻口가 深遠廣大하게 聽視嗅味하려면 存其心養其性하여야 하며, 肺脾肝腎이 正直中和하게 學問思辨하려면 修其身立其命하여야 하는 것이다.

籌策을 行其知의 과정을 통해 이루는 기전은 耳聽天時하여 哀性이 형성되는 기전과는 다르게 津海의 淸氣가 耳를 통하여 나오면서 神을 형성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다. 太陽人이 察天機(耳聽天時)하면서 哀性이 遠해지게 되고 太陽人의 廣博한 天時의 聽力으로 津海의 淸氣를 提出함으로써 上焦를 充滿시키고 神을 이루면서 額에 籌策이 쌓이게 된다. 그렇다면 당연히 籌策은 太陽人의 전용물이 될 것이나 東武는 太陰人의 驕心이 없는 籌策이야말로 絕世의 籌策이라 하였다. 이 籌策은 太陽人의 聽學之才로 이루어진 籌策과 달리 卓然한 嗅思之才로 이루어진 籌策인 것이다. 卓然한 嗅思之才로 이루어진 籌策이란 太陰人은 아무리 어리석다할지라도 그 本性이 卓然¹³¹⁾하기 때문에 자신의 개인적인 욕심을 절제하고 노력하기만 한다면 그렇게 쌓아올린 지식과 재능으로 주위 사람들을 피어서 널리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耳無聽力한 太陰人이라 하더라도 太陰之耳가 近聽하여 太陰之額에 驕意가 생기는 것을 경계하고 자신의 不及한 性氣를 극복하는 방법으로 몸소 두루 知를 얻고자 노력한다면 太陰人이라 할지라도 太陰之耳가 遠聽할 수 있을 것이며 太陰之

額에 籌策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형성된 籌策은 다 체질에서 얻을 수 있는 籌策과는 다르게 남을 교화할 수 있고 남들이 자발적으로 본받고 따라올 수 있게 하는 대단한 籌策일 것이며 이것이 太陰人의 卓然한 嗅思之才에 의한 籌策일 것이다. 그래서 東武는 太陽人이 본연의 性氣의 特長으로 형성한 籌策이 아닌 太陰人의 存其心養其性하여 비로소 얻게 된 籌策을 絕世의 籌策이라 표현하였다.

神이 頭腦를 공급하여 積累된 것이 賦海이며, 또 神의 光明而鑑造化한 성질이 識見의 성질과 같아 賦海의 神이 충만한 사람이 識見또한 당연히 출중할 것이다. 그런데 天時의 聽力이 廣博한 太陽人의 識見을 大人의 識見이라 하여야 하나 大人의 識見은 少陰人에게 있다고 한 이유는 衰氣가 '少陰-腎'부위에서 출발하여 '太陽-肺'부위에 이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修其身 立其命'하는 노력을 통해 賦海인 頭部를 충실히 공급해 주기 위해서는 '少陰-腎精'이 충실한 少陰人이 大人의 識見을 이룰 수 있는 바탕을 갖고 있는 것이다. 전적으로 암컷이 되고자하는 情氣를 타고난 少陰人으로서 자신의 不及한 情氣를 극복하여 수컷이 되고자 하기만 한다면 放縱之心이 없는 識見인 大人의 識見을 이룰 수 있게 될 것인데, 太陽人의 識見처럼 원리적인 이치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현실과 동떨어진 識見이 아닌 少陰人의 大人之識見은 현실적으로 적용가능하고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원리원칙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무시하거나 억지로 끼워 맞추려고자 하는 奪心이란 愈心이 없는 탁월한 智慧로 순하게 많은 사람들을 어를 수 있는 깊이가 있는 識見일 것이다.

『東醫壽世保元』 「性命論」의 핵심은 그 마지막 문단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人間 本性의 淸濁과 才能의 愚劣을 타고난 것 같지만 人性의 淸濁은 責心에 달려 있고 才能의 愚劣(強弱)은 責氣에 달려 있다고 분명히 기술하였다. 즉, 存其心養其性하는 것은 責心을, 修其身立其命하는 것은 責氣를 얼마나 꾸준히 노력하느냐에 달려있으므로 자신의 愚와 不肖함을 극복하는데 인간의 가치 실현의 초점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東武가 언급한 絕世之慧覺과 大人之資業이

131) 民衆書林編輯局. 漢韓大字典. 경기도. 民衆書林. 2007. p.340. 卓然(=卓卓然): 높이 뛰어난 모양.

각 體質에서 가장 不及한 부분에 配屬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¹³²⁾

經綸·威儀, 行檢·材幹, 度量·方略에 대한 부분도 위와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省略한다.

5. 東武의 知行論

東武의 知行論에 있어서 그 核心은 그 사람의 本性이나 才能이 어떠한가가 아니라 특정 體質이나 知愚賢不肖와 상관없이 자신의 長點은 살리고 短點을 극복하면서 세상에 자신의 존재성을 부단히 높여나가고 사회에 조화를 피하면서 노력하는 삶을 지향하고 있다. 즉 『東醫壽世保元』에서 언급된 단어로 든다면 ‘存其心養其性’, ‘修其身立其命’하는 과정 자체가 性命이고, 이러한 과정으로 이루어낸 것이 知行이며 道德인 것이다. 그러한 東武의 知行論에서 絶世의 慧覺과 大人의 資業은 마땅히 자신의 不及한 短點을 부단한 노력의 과정으로 극복해낸 결과물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IV. 結論

『東醫壽世保元』에서 四象醫學의 原理論에 해당하는 「性命論」 「四端論」 「擴充論」의 내용 중 性命의 4요소가 太少陰陽人에 配屬되는 원리가 性命의 입장에서 배속되었으나, 아니면 知行的 입장에서 배속되었느냐에 따라 체질적으로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慧覺·資業과 자신의 체질적 短點을 부단한 노력으로 극복해낸 絶世之慧覺·大人之資業이 太少陰陽人에게 配屬되는 것이 서로 상반될 것임은 물론 이러한 배속의 차이로 東武의 知行論이 추구하는 지향점을 알 수 있다.

자연적으로 타고나는 慧覺과 資業의 체질적 長短은 「性命論」의 배속대로 太陽人에게 籌策과 識見이, 少陽人에게는 經綸과 威儀가, 太陰人에게는 行檢과 材幹이, 少陰人에게는 度量과 方略이 能할 것이나 體

質의 長點만을 살린 知行이 아닌 자신의 短點을 부단한 노력으로 극복하여 이루어낸 知行을 東武는 絶世의 慧覺, 大人의 資業이라 칭하고 道德의 삶을 지향하는 인간이라면 마땅히 추구하여야할 목표로 삼고 있다. 즉 이것이 東武가 지향하는 體質的 修養論이며 자신의 短點을 배움의 과정으로 노력하여 극복함으로써 이루어낸 결과물이어야 남을 가르칠 수 있고 함께 그 재능을 나눌 수 있는 知行으로서의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¹³³⁾

津海에 屬하는 額에서 형성된 籌策은 마땅히 타고난 性氣가 남보다 앞서고자하는 太陽人에게 能한 知에 해당될 것이다. 籌策의 의미는 자신의 생각과 판단대로 계획을 세우고 남에게 내보이는 행위이다. 그러나 이 籌策이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힘이 뒷받침되는 계획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입장과 위치를 정확히 판단하고 그에 적합하게 실현 가능한 계획을 세워야하는데 그것은 太陰人이 안주하고자 하는 性氣的 취약점을 太陽人의 진취적인 性氣를 배우면서 극복함으로써 부지런히 움직여 주변 상황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노력하여야 탁월[卓然]하게 이를 수 있을 것이며, 이를 絶世의 籌策이라 일컬을 수 있는 것이다.

膏海에 屬하는 臆에서 형성된 經綸은 마땅히 타고난 性氣가 일을 잘 벌이고 다양한 경험을 한 少陽人에게 能한 知에 해당될 것이다. 經綸의 의미는 다양한 사람들 간의 복잡한 인간관계에서 그 사람이나 일에 대한 관계정리를 공정하고 적절하게 해내는 행위이다. 그러나 이 經綸이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지키면서 어느 한 쪽으로 치우쳐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지 않는 經綸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을 중심에 두고 순차적으로 범위를 확장시키면서 관계정리가 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少陰人이 나서지 않고 안으로 숨고자하는 性氣的 취약점을 少陽人의 적극적으로 나서고자하는 性氣를 배우면서 극복함으로써 자신의 관심을 밖으로 돌려 세상을 넓게 보고 도모하는 노력으로 탄탄[坦然]하게 이를 수 있는 것이며, 이를 絶世의 經綸이라 일컬을 수 있는 것이다.

132) 白裕相. 天人性命에 따른 四象體質間 비교 연구. 대한한 의학원전학회지. 2004. 17(1). p.54.

133) 허훈. 동무 이제마의 수양론의 특질. 동양철학연구회. 2007. pp.31-33.

油海에 屬하는 臍에서 형성된 行檢은 마땅히 타고난 性氣가 듬직하게 자신의 위치를 잘 지키는 太陰人에게 能한 知에 해당될 것이다. 行檢의 의미는 모가지 않게 行실함으로써 주위의 본보기가 될 만한 행위를 보이는 것이다. 그러나 이 行檢이 외부적인 규율이나 도덕적 당위성에 맞추기만 하는 변화와 발전이 없는 것이 아닌 항상 역동적으로 미래지향적인 본보기가 될 만한 行檢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太陽人이 뒤를 돌아보지 않고 물러서지 않으려는 性氣的 취약점을 太陰人의 듬직하게 안정하고자하는 性氣를 배우면서 극복함으로써 자신의 재능과 능력에 대한 내실을 확실히 기르고 그 이후에 실행으로 옮길 때 군더더기 없이 모두가 편(便然)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行檢을 이룰 수 있는 것이며, 이를 絶世의 行檢이라 일컬을 수 있는 것이다.

液海에 屬하는 腹에서 형성된 度量은 마땅히 타고난 性氣가 자기 주변을 잘 단속하고 포용하는 少陰人에게 能한 知에 해당될 것이다. 度量의 의미는 너그럽게 받아들여 그 안에서 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보호해주는 행위이다. 그러나 이 度量이 자신의 기준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누구나 공감할 수 있고 공적이고 명확한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되기 위해서는 少陽人이 주변의 무슨 일이든 가만두지 않으려는 性氣的 취약점을 少陰人의 함부로 나서지 않고 자기중심을 지키는 性氣를 배우면서 극복함으로써 자신의 관심과 힘을 안으로 쏟아 힘을 기르고 난 뒤에 사람이나 일을 받아들일 때 크고 여유롭게 포용(恢然)할 수 있는 度量을 이룰 수 있는 것이며, 이를 絶世의 度量이라 일컬을 수 있는 것이다.

臍海에 屬하는 頭에서 형성된 識見은 타고난 情氣가 항상 뛰어나고자하는 太陽人에게 能한 行에 해당될 것이다. 識見의 의미는 말 그대로 學識과 見聞으로 肺가 學에 배속되어 肺大한 太陽人이 善學함으로써 臍海의 淸汁을 吸得하는 과정을 통해 識見을 잘 이루어 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大人의 識見이 되기 위해서는 이론에 충실한 學을 위한 學이 아닌 실사구시하는 學이 되기 위해서는 현실에 바탕을 두고 구체적인 學이 되어야하기 때문에 매사에 현실적으로 거듭 깊이 판단하는 성향을 지닌 少陰人이 太陽人

의 항상 수컷처럼 행동하고자하는 情氣를 배우면서 난관을 피하(偷逸之心)지 않고 적극적으로 현실을 받아들이고 부딪치면서 극복해 낼 때 이룰 수 있는 것이며, 이를 大人의 識見이라 일컬을 수 있는 것이다.

膜海에 屬하는 肩에서 형성된 威儀는 타고난 情氣가 항상 곁으로 드러내고자 하는 少陽人에게 能한 行에 해당될 것이다. 威儀는 예의에 맞아 그 거동이 위엄이 있다는 뜻으로 脾가 問에 배속되어 脾大한 少陽人이 善問함으로써 膜海의 淸汁을 吸得하는 과정을 통해 威儀를 잘 이루어 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大人의 威儀가 되기 위해서는 남에게 중심을 맞춘 問을 위한 問이 아닌 실제로 얻을 수 있는 問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중심을 갖고 스스로 부족한 부분을 問하여하기 때문에 모든 事物에 深思熟考하는 성향을 지닌 太陰人이 少陽人의 매사에 관심을 갖고 직접 참여하고자하는 情氣를 배우면서 일이나 사물에 대한 욕심[物欲之心]을 버리고 자신의 고정된 틀을 깨고 밖으로 관심을 들릴 때 이룰 수 있는 것이며, 이를 大人의 威儀라 일컬을 수 있는 것이다.

血海에 屬하는 腰에서 형성된 材幹은 타고난 情氣가 항상 안을 지키고자하는 太陰人에게 能한 行에 해당될 것이다. 材幹의 의미는 말 그대로 채주와 간능으로 肝이 思에 배속되어 肝大한 太陰人이 善思함으로써 血海의 淸汁을 吸得하는 과정을 통해 材幹을 잘 이루어 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大人의 材幹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이나 자기주변만을 위한 思가 아닌 모두가 함께 공유하고 공용할 수 있는 思가 되어야하기 때문에 항상 남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고 넓게 물어서 모두에게 맞추고자하는 성향을 지닌 少陽人이 太陰人의 진중하게 자신의 내실을 지키고 키우는 情氣를 배우면서 경솔하게 자신을 곁으로 드러내고자하는 욕심[偏私之心]을 극복하고 안에서 생각과 재능이 중심을 잃지 않고 확고해질 때까지 부단히 노력할 때 이룰 수 있는 것이며, 이를 大人의 材幹이라 일컬을 수 있는 것이다.

精海에 屬하는 臀에서 형성된 方略은 타고난 情氣가 항상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면서 조신하는 少陰人에게 能한 行에 해당될 것이다. 方略의 의미는 좁은

범위 안에서 해결책으로 腎이 辨에 배속되어 腎大 한 少陰人이 善辨함으로써 精海의 清汁을 吸得하는 과정을 통해 方略을 잘 이루어 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大人의 方略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이 속한 좁은 범위에서만 아니라 다른 환경 속에서도 활용이 될 수 있는 方略이 되기 위해서는 事物의 중요한 원리원칙을 잘 파악하면서도 지엽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연연해하지 않는 太陽人이 少陰人의 사소한 것까지 챙기는 암컷의 면모와 같은 情氣를 배우면서 앞서 나서서 자신의 뜻대로 다른 사람의 희생을 강요하면서까지 일을 진행하고자하는 욕심[放縱之心]을 버리고 사람에 대한 세심한 배려를 하고자 노력할 때 이를 수 있는 것이며, 이를 大人의 方略이라 일컬을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자신이 타고난 性氣나 情氣의 장점을 살려서 일을 하고 인간관계를 맺을 때에도 자신의 가치를 발휘할 수 있지만 그보다 더 큰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타고난 性氣와 情氣의 단점을 극복하면서 私心과 慾心을 버려야 사회적으로 많은 사람을 아우를 수 있는 知行을 실현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體質의 修養論을 통해 개개인이 타고난 기품의 과불급을 조화롭게 균형맞춤으로써 신체는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고 마음은 도덕적 가치에서 벗어나지 않게 되어 개인은 건강과 장수를 이룰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편안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서로 존중하고 믿을 수 있으며 서로 도움이 되는 사회적인 건강까지도 도모할 수 있게 될 것이다. 東武의 知行論의 핵심은 자신의 가치 실현이나 사회적으로 모든 사람이 함께 조화를 이루면서 이상적인 도덕적 인간세상을 이루기 위해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적인 조화가 먼저 이루어져야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남의 장점을 본받아 배우고 나의 장점을 남과 함께하면서 가르치고 자신의 부족한 재능을 극복하면서 실현할 때 비로소 모두가 함께(學·教)할 수 있는 최상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다고 역설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한 東武의 知行論에서 絶世의 慧覺과 大人의 資業은 마땅히 자신의 不及한 短點을 부단한 노력의 과정으로 극복해낸 결과물일 수밖에 없는 것이

다.

V. 參考文獻

<原典類>

1. 申泰三 校閱. 論語集註. 서울. 明文堂. 1996. p.245.
2. 金赫濟 校閱. 大學中庸. 서울. 明文堂. 1995. p.2, 43.

<單行本>

1. 金亨泰 譯. 東醫壽世保元講義. 서울. 도서출판 정담. 1999. pp.99-100.
2. 김명근. 애노회락의 심리학. 서울. 개마고원. 2003. pp.49-69.
3. 民衆書林編輯局編. 漢韓大字典. 경기도. 民衆書林. 1998. p.340, 688.
4. 朴性植.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 서울. 集文堂. 2003. p.65, pp.71-75, 77-81, 96-100.
5. 송일병의. 사상체질과임상편람 『東武遺稿海東』. 서울. 경희한의대사상체질과. 2007. p.12.
6. 윤종빈, 김영목. 사상의학의 역철학적 기초. 대전. 문경출판사. 2004. pp.92-99.
7. 李乙浩, 洪淳用. 四象醫學原論. 서울. 행림출판사. 1973. p.27.
8. 李濟馬 原著, 權健赫 譯. 國譯東醫壽世保元. 서울. 圖書出版盤龍. 1999. p.17.
9. 李濟馬 原著, 權健赫 編輯. 李濟馬全書. 서울. 圖書出版盤龍. 2002. p.22.
10. 李濟馬 原著, 朴大植 譯註. 格致藁. 경기도. 청계출판사. 2002. p.205, 206.
11. 임헌규. 유가의 심성론과 현대 심리철학. 서울. 철학과 현실사. 2001. pp.358-361.
12. 全國韓醫科大學 四象醫學教室. 四象醫學. 서울. 集文堂. 1997. p.40, 91, p.441-442, 435-436, 438-440.
13. 朱紅星, 李洪淳, 朱七星. 한국철학사상사. 서울. 예문서원. 1994. pp.391-395.
14. 평유란 지음, 정인재 옮김. 중국철학사. 서울. 형설출판사. 2008. pp.427-431.

15. 허훈. 동무이제마의 철학사상. 서울. 심산출판사. 2008. pp.16-18.

<論文>

1. 權健赫. 黃帝內經 靈樞 27篇 周痺篇에 대한 考察. 계간사상의학. 2004. 가을호. pp.76-77.
2. 金滿山. 周易의 관점에서 본 四象醫學原理(1)性命論에 관하여. 동서철학연구. 1999. 18(1). p.9.
3. 金景수, 이수경, 이의주, 고병희, 송일병. 東醫壽世保元과 格致藁의 四象構造에 對한 考察. 사상체질의학회지. 2004. 16(2). p.42.
4. 金윤기. 이제마 철학구조와 몸의 윤리-주회와의 비교를 통해. 윤리연구. 2005. 60. pp.24-25, p.28, 36.
5. 盧相容. 東武 四象醫學의 哲學的 意義와 醫學的 擴張. 세명대학교대학원. 2006. p.33.
6. 盧相容. 東武 四象醫學의 哲學的 意義와 醫學的 擴張. 世明大學校大學院. 2006. pp.3-9.
7. 朴석준. 이제마 천기론의 구조(1). 의철학연구. 2007. 4. pp.20-21.
8. 朴性植, 宋一炳. 四象醫學의 醫學的 淵源과 李濟馬 醫學思想에 대한 研究. 사상의학회지. 1993. 5(1). p.1.
9. 方正均, 丁彰炫. 芸菴韓錫地 思想 研究. 慶熙大學校大學院. 2003. p.21-31.
10. 白裕相. 東武李濟馬의 性情論에 대한 해석-四七理氣論辯을 중심으로. 한국철학논집. 2009. 26권. pp.218-220.
11. 白裕相. 天人性命에 따른 四象體質間 비교 연구.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2004. 17(1). p.54.
12. 孫祥坤. 儒學者들의 心性情과 李濟馬의 性情氣에 관한 문헌적 고찰. 상지대학교. 1997. p.42.
13. 宋시원, 강정수. 유학의 흐름과 河圖洛書 및 사단칠정을 통한 東武 李濟馬의 사상인 형성에 대한 연구. 동의생리병리학회지. 2005. 19(1). p.37.
14. 宋一炳, 李文宰. 四象醫學의 四端七情論에 對

한 考察. 慶熙大學校大學院. 1980. pp.44-45.

15. 이병채. 東武 李濟馬 四象醫學과 哲學에 대한 考察. 원광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2006. p.38.
16. 趙榮. 哀怒喜樂之氣의 運動에 따른 太少陰陽人의 四臟大小 變化에 대한 研究. 慶熙大學校大學院, 2005. pp.35-41.
17. 최대우. 동무 이제마의 성명관. 범한철학. 33. 2004. pp.81-88, 90-92, 94-100.
18. 한자경. 사단칠정론에서 인간의 성과 情. 철학연구 68. 2005. pp.174-179.
19. 허훈. 동무 이제마의 수양론의 특질. 동양철학연구회. 2007. pp.16-17, 31-33.
20. 허훈. 동무 이제마의 이기성정론에 관한 연구. 동양철학연구회. 2006. p.224.

